

순천향의 '인간사랑'이 만든 따뜻한 감동

환자와 역지사지로 공감하고 소통합니다



승풍파랑(乘風破浪)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간다!

2022년 새해에도 순천향은 어떤 시대적 불확실성의 혼돈과 도전 속에서도 새로운 100년을 향해 씩 없이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희망으로 가득 넘쳐야 할 새해에도 새로운 코로나로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순천향도 예외가 아닙니다. 순천향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끊임없는 신뢰와 지지를 통해 그동안의 어려움을 잘 극복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올해의 예상된 어떤 어려움도 순천향은 '인간사랑'이라는 설립 이념으로 전 교직원의 강인한 의지와 비전의 공유, 여기에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으로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2022년 새해에도 순천향은 오직 환자와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존재합니다.



표지설명
순천향대 구미병원 정형외과 김대근 교수와 박건우 환자와의 가슴 따뜻한 감동스토리를 2022년 새해에 표지 인물로 정하여 순천향의 '인간사랑'은 새해에도 계속된다는 의지를 담았다.

순천향
2022.01+02
Vol. 69 통합의료원보

C O N T E N T S



6



12



16



20



40

2	MESSAGE	신년사
6	LOVE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정형외과 김대근 교수와 박건우 환자
8	SPECIAL	'인간사랑'을 실천한 '기부천사'들
10	HISTORY	'서석조SCH플랫폼'
12	DOCTOR	서은숙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16	VISIT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비뇨의학과'
20	WITH	암환자 위해 500만원 기부한 환자
22	ISSUE	서울병원, '수면다원검사실' 오픈
24	ISSUE	부천병원, '의학 연구 활성화' 총력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 평가 '경기도 1위, 전국 2위'
26	ISSUE	천안병원 2021년 수상내역 총정리
28	ISSUE	구미병원, 서울시 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와 MOU
30	KNOWLEDGE	상완동맥-흉곽내출정맥 이용한 동정맥루 수술 성공
32	KNOWLEDGE	폐쇄성수면무호흡증과 '감상샘암'
34	KNOWLEDGE	임신성 당뇨병
36	KNOWLEDGE	항문질환
38	EQUIPMENT	천안병원 의료장비, '키네보900'
40	ALUMNUS	이성호 현대유비스병원 원장(순천향 의대 3회)
42	BOOK	『왜힘들지? 취직했는데...』 / 『재즈 레이블 대백과』
44	NEWS	

「순천향」 통권69호

발행일 2022년 1월 19일 발행인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중, 배지연, 이상원, 유채민
연락처 02-709-9593 www.schmc.ac.kr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59 기획·편집·디자인 피앤플러스 02-2269-5689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도전과 불확실성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힘은 서로 돕는 순천향 가족의 단합된 믿음뿐입니다!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향 가족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무엇이 있을지,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저는 새해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 같은 것이라는 말을 좋아 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는 멋진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은 병원의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서유성 중앙의료원장님과 새롭게 취임하시는 이정재 원장님, 박상흠 천안병원장님, 정일권 구미병원장님 또 유임하신 신응진 부천병원장님께 많은 기대를 합니다. 예전에 들은 말로 군수국비 군비국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임금이 매일 고민하고 노력해서 수척해지면 나라는 살이 찌고 반대로 임금이 매일 잔치만 하고 마음이 편해서 살이 찌면 나라는 수척해진다는 말입니다. 원장님들이 스트레스 받으실 말이지만 저는 이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 말을 군비국비, 즉 병원도 풍요로워지고 튼튼하게 살이 찌고, 원장님들도 마음이 편해져서 살이 절로 찌시는 것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큰 변화가 예측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조직에도 영향을 주겠고, 정책 변화 등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바람을 탈 수도 역풍으로 고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불확실성과 혼돈의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단합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우리 순천향 가족들이 올해 서로서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돈이 많

거나 하지않던 설립자께서 필생의 꿈이셨던 병원과 대학의 설립을 이루어내신 아주 중요한 요인이 주위의 많은 분들이 설립자를 신뢰하고 도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립자가 이런 절대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나보다 남을 위하여 라는 삶의 철학이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설립자가 성인군자의 삶을 사시지는 않았습니 다. 그저 내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환자를 위해서라면 밤중, 새벽이라도 진료에 최선을 다하셨고, 학생들을 위해서 밤을 새가며 강의를 준비하셨으며, 외국 유학을 준비하는 선생님의 영문 편지를 직접 써주시며 주변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발 벗고 뛰고 최선을 다해 도우셨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말로 유달리 과묵하고 말이 없었다는 설립자가 주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꿈을 이루신 이유 일 것입니다.

우리 순천향 가족들도 설립자처럼, 나보다 먼저 동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행복감과 사랑으로 가득 차고 우리 병원은 서로가 신뢰하는 행복한 병원, 화합에너지 넘치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한 사람의 힘과 지혜는 여러 사람의 힘만 못하고, 여러 사람의 힘은 여러 사람의 지혜만 못한 법이다.” 한 비자의 말입니다. 2022년을 맞이하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서로 도와서, 행복하고 따뜻한 순천향을 만들어 갑시다. 2022년, 우리 순천향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분의 가정에 신의 축복과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01월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서교일

코로나19 극복, 뉴노멀시대 대비하는 새해 되길...



서유성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사랑하는 순천향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순천향 가족 모두 뜻하는 바를 이루시고, 즐거운 일이 많은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올 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는데, 흑호의 기운으로 코로나19도 물리치고 우리 순천향도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특히 서울병원과 천안병원, 구미병원은 병원장이 바뀌셔서 각 병원은 물론, 의료원 전체적으로도 새로운 활력과 변화가 기대되는 해입니다. 부천병원 역시 지난해 개원 20주년을 뜻깊게 보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병원장을 맡게 되신 이정재 서울병원장님, 박상흠 천안병원장님, 정일권 구미병원장님, 그리고 연임하신 신응진 부천병원장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중앙의료원과도 잘 협력해서 더 멋진 순천향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순천향 가족 여러분!

지난해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와 엄중한 위기 속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설립자이신 향설 서석조 박사님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박사님의 유훈을 담아낸 새 병원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고, 2024년 개원을 목표로 열심히 공정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순천향은 전문의 730명을 포함, 전체 교직원 7,000명, 월 평균 외래환자 210,000명, 총 2,900병상에서 월평균 63,000명의 입원환자, 5,200건 이상의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에서도 진료와 연구는 물론, 보다 편리한 병원 이용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와 시스템 개선, 조직문화 발전을 지속하는 등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순천향 부속병원이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신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순천향 가족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일구어 냈던 약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은 예측이 힘들고, 끝 없이 지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며, 암울하기만 한 듯 합니다. 금년에도 코로나와의 힘든 싸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찾아올 뉴 노멀 시대의 많은 변화는 우리를 현실에 안주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시간들이 지나간 후의 일을 예측하고 변화 될 보건의로 환경에 대비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그러하듯이, 내년에도 우리의 도전과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향한 우리의 굳은 다짐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 될 것입니다. 미국 사상 처음으로 시집을 발간한 여성 시인인 앤 브래드스트리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삶에 만약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다지 즐겁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끝이 없고 암담하기만 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쳐 극복해내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이후에는 더욱 값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2022년 임인년의 출발은 험난한 환경 속에서 시작하게 되지만, 금년에도 우리는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희망과 결실을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 번, 올 한해 순천향 부속병원의 발전과 순천향 가족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순천향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 서유성

Tri-Shift, 진료·연구·조직문화 전환의 해...

이정재 서울병원장



사랑하는 순천향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새해 어떤 계획이나 희망, 꿈을 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병원이 혁신보다는, 작지만 가치 있는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꿈꾸고, 희망했던 계획을 이루고, 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올해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Tri-Shift. 뛰어넘거나 혁신이 아닌 전환에 의미를 두고 진료, 연구, 문화에서 변화를 추진하고자합니다.

먼저, 진료환경 개선과 경영 선순환을 위해 부족한 진료공간과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료질평가를 상시 관리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임상시험 맞춤형 수탁서비스인 ARO를 설치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력과 행정시스템을 지원하여 AI, 스마트병원,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직문화는 간호환경 개선과 장기적인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특히 MZ세대 선생님들이 함께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도 활발히 하여 우리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직원 여러분, 올해는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호랑이의 기운으로 여러분과 환자를 섬기며 힘차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1월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 이정재

‘기호지세^{騎虎之勢}’의 마음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 경영목표 를 향해 나아갑시다!

신응진 부천병원장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기호지세(騎虎之勢,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의 마음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듭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2022년을 맞이해 ‘최상의 중증 환자 거점병원’, ‘환자 안전이 최우선인 병원’, ‘감염 관리를 선도하는 병원’이라는 세 가지 새로운 경영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최상의 중증 환자 거점병원’이 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앞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강화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기관’으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적절한 투자와 준비를 지속해 향후 정책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권역 내 ‘최종 중증 환자 치료 거점병원’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둘째, ‘환자 안전이 최우선인 병원’입니다. 병원은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칫 방심하면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환자를 치료할 때 크고 작은 사고의 가능성이 늘 존재합니다. 환자와 교직원, 주민이 안전할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 관리를 선도하는 병원’입니다. 수년간 지금의 코로나19 방역·격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호복을 입고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시시각각 변하는 방역 시스템에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감염 관리를 선도하는 병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포효하는 호랑이의 기상과 용맹, 과감함을 발판으로 우리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장 신응진

우리의 꿈,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BioMedicalCluster}

박상흠 천안병원장



2022년 새해는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병귀(病鬼)’를 물리치는 영험의 기운을 지녔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의료적 측면에서 국민 건강과 국가 구동력을 위협하는 국가재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의 최전선이자 최후 보루에서 의료인의 책임감과 대학병원의 자부심(Pride)으로 꺾이지 않고 버텨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은 의료인으로서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가혹하게 시험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 향설 서석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리라”의 뜻을 뼈 속 깊이 인식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올해는 의료인의 공력과 호랑이 기운이 하나로 뭉쳐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황’이 벽사진경(辟邪進慶)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올해는 천안병원이 개원 40주년을 맞이하고 ‘중부권 최종 거점병원’이라는 새로운 40년의 비상이 가시화되는 해입니다. 2024년 완공 예정인 ‘새병원’과 ‘감염병 전문병원’의 건립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SIMS’ 및 ‘의과대학’과 연계된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BMC)’ 완성에 성큼 다가서게 됩니다. 향후 구축될 BMC는 의료 및 의학의 상향표준화(Upward & Hi Standardization)라는 대학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나아가 천안 및 충청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큰 몫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천안병원은 전통적으로 역경 때마다 특유의 ‘응집력’ 문화가 있어 지난 40년 동안 마주하였던 여러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하였고, 또한 닥친 어려움을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해석하는 ‘지혜’가 늘 함께 하였습니다. 현재 매일 마주하는 코로나 상황도 천안병원 특유의 문화를 다시 환기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 세대가 그리 하셨듯이, 미래 자손을 위한 우리 세대의 의무인 BMC 완성이라는 꿈을 매일 되새김하는 디딤돌로 삼읍시다. 순천향가족 여러분, ‘보람’, ‘지혜’ 그리고 ‘형통(亨通)’이 늘 함께 하시길.

2022년 1월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장 박상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역 최고의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성장

정일권 구미병원장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2022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순천향 대학교 구미 병원은 지난 40여 년간의 세월 동안 오직 하늘의 뜻에 순종하며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대학 병원으로 경북 중서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숨 쉬어 오며 오랜 세월 꾸준히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 최고의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더욱 성장해 가며, 모든 교직원이 희망과 자부심 그리고 사랑 넘치는 일터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최근 급진적으로 변하는 디지털시대에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인공지능 서비스 확대, 화상회의, 금융거래 등의 다변화,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고객센터 확대와 고도의 마케팅전략 수립을 통해 기업 생존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의료계 또한 각종 평가와 환자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외래관 증축공사 및 병원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질환 중심의 전문화된 각종 센터와 클리닉으로 재배치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환경과 전문화된 진료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수한 교원의 충·증원을 통해 진료의 전문성을 증대시키며 연구, 교육을 통해 의료수준을 높이고 명실 공히 대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기틀을 잡는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절대적 신뢰를 받는 경북중서부권 최고의 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와 소통과 화합을 통한 사랑이 흐르는 조직문화를 통해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며, 부서 및 직원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설립이념인 ‘인간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더욱 아름다운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22년 1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장 정일권



‘신뢰’가 만든 따뜻한 감동

역지사지 마음으로 환자와 공감하고 소통

글_김지홍 사진_이현익

자신의 아픔에 매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그 성장은 타인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끌어안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이해한다’는 것은 공감하는 것이고 공감할 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김대근 교수(정형외과)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박건우 환자(56)의 고통을 들여다보았고 그러한 공감이 신뢰를 낳았다. 환자는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어 장문(長文)의 편지를 병원에 보내왔다.

박건우 환자가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 입원한 것은 2020년 9월 1일이었다. 비 오는 날, 거꾸로 철봉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허리가 부러졌다. 흉추 12번이 앞쪽 척추체부터 뒤쪽 극상돌기까지 골절되었으며, 극간인대의 파열도 관찰되었다. 흔히 ‘삼주(三柱) 골절’이라 부르는 척추 찬스(chance) 골절이다. 바로 수술에 들어가 흉추 11번부터 요추 2번까지 후방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다.

박건우 환자가 회복되는 데는 1년 6개월이 걸렸다. 박 환자는 퇴원 후 구미병원에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다. 담당 의사였던 김대근 교수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다. 박 환자는 수술 후 허리에 매달아 놓은 헤모박(hemovac, 배액관)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통증이 너무 심해 돌아누울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 김 교수는 일요일 오후에 제거해 주겠다고 말했지만, 병동의 담당 간호사는 김 교수가 일요일에 비번이라며 아마도 잘못 들었을 거라고 말해주었다. 박 환자는 ‘그저 하루만 더 버티자’는 심정으로 꼼짝도 않고 누워 월요일만 기다렸다.

동병상련(同病相憐)

그런데 김 교수는 약속대로 일요일 오후 병원에 나와 있었다. 그리고 박 환자의 헤모박을 제거해 주었다. 비번이었지만 박 환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출근했던 것이다. “환자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한다. 포항에서 근무할 때는 거주지가 포항이었고 구미병원으로 오면서는 구미로 이사 왔다. 의사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환자가 위급할 때 바로 달려오는 것이다. 주말에도 하루는 꼭 병원에 들른다. 내 환자는 내 눈으

로 직접 봐야 안심이 된다.”

김 교수가 이런 자신만의 ‘원칙’을 세운 데는 개인적인 아픔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김 교수는 6년 전 ‘비인두암’을 앓았다. 비인두암은 코 뒤쪽에 생기는 암 질환인데, 이 병 때문에 김 교수는 펠로우 시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아내마저 3년 전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보냈다. 스스로 환자였고, 또 환자의 보호자였기에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이다. 자신이 온 몸으로 경험해 본 아픔이기에 지금 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품을 수 있었다.

공감 통한 신뢰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사람은 다 똑같아진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경험해봐야 환자와 보호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환자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한다. 환자와 의사는 의료인과 환자이기 이전에 고통 앞에 서 있는 동일한 인간이다.”라고 김 교수는 말한다.

김 교수는 “아픔이 공유되어야 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해할 때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며 “스스로 아파봤기에 환자의 고통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박 환자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친구 같았다. 의료진과 환자가 서로를 신뢰할 때 보여줄 수 있는 따뜻한 풍경이었다. 오랫동안 간직하고픈 마음속 풍경이었다. ■



‘인간사랑’을 실천한 ‘기부천사’들

개인·기업, 순천향 발전기금 등 감사의 기부 잇따라

연말을 맞아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에 병원발전기금과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물품 등 기부의 손길이 이어져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기부에 따라 병원에서는 어려운 환자를 돕고, 시설과 장비 등 진료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크고 작은 기부가 모이고 쌓여서 병원을 찾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혜택을 주고, 직원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감사함을 주고 있다.



지난 12월 23일에는 이신근 썬밸리그룹 회장이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지난해 12월에도 발전기금 1억을 기부한 이신근 회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순천향대병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 싶었다”며 기부의 뜻을 밝혔다.

석수경 (주)수일통상 회장도 총 1억원을 기부했다. 석수경 회장은 지난 6월 2천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11월 24일에 8천만원을 추가 기부해 1억원을 채웠다.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 건강과학

CEO 과정 27기 동문인 석수경 회장은 “평소 병원을 이용할 때마다 가족처럼 따뜻하고 친절하느라 느낌을 받았고 치료도 잘 해 주셨다”며 “코로나로 고생하는 의료진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유선일·정석호 교수 부부도 5천만원 추가 기부했다. 유선일·정석호 교수 부부는 2018년에 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화장품 기업인 (주)솔베라 윤준식 대표는 코로나19 극복 격려 물품으로 아르베라리페어크림 2,488개와 선크림 1백개를 기증했다. 애경산업 역시 12월 22일, 1억원 상당의 손소독제를 기부

했다. 이날 기부한 손소독제는 랩신V3 새니타이저 젤 500ml 1만7천40병이다. 김재철 (주)에스텍파마 회장은 12월 6일, 발전기금 1천만원 기부했다. ES우리안과 이응석 원장은 12월 1일 병원을 직접 방문, 2천만원의 병원발전기금을 쾌척했다. 이응석 원장 역시 지난해 7월 병원발전기금 5천만을 기부한 바 있다. 유만순 씨도 11월 29일 병원을 방문, 서유성 병원장에게 3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유만순씨는 “최성우 정형외과 교수의 수술로 건강을 되찾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부금을 쾌척했다. (주)젬브로스에서는 11월 17일 패션마스크와 마스크 스트랩 1천개를 기부했다. CEO 건강과학대학원 33기

에서 2천만원, 이승용 모건피부과 1천만원, SPC행복재단 5천만원, (주)엔티아이 KF-99 마스크 1만장, 이습코리아에서 핸드크림을 기부했다.

특히, 2018년부터 브레인컨텐츠로 기부를 시작한 글로벌텍스프리그룹, 스와니코코는 2021년 한해만 83,122,000원을 기부하였고 계열사로 기부해온 누적액이 2억 8천이 넘었다. 가장큰 태평양약국 이예형 약사는 만성신부전환자를 위해 2019년부터 매달 50만원을 기부하여 3년째 1천8백만원을 기부하고 있으며, KF-94 마스크 2천장도 기부했다. 현암신장연구소에도 연구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추내과의원의 추원석 원장, 호내과 이재성 원장, 약수내과 김지형 원장, 서울우리내과 임현관 원장, 서울효사랑 요양병원 김수지 원장, 별내우리내과 우성애 원장, 김무원 내과, 장선호 내과에서 후학을 위해 연구 기금을 꾸준히 기부해 주고 있다.

서유성 병원장은 “정성어린 기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순천향이 의료계를 선도하고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코로나 극복 위한 물품과 병원발전기금 기부 물결

중증 환자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물품과 병원발전기금 등 기부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병원은 이를 통해 어려운 환자를 돕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병원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는 병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자긍심을 주어 큰 힘이 되고 있다.

애경산업의 위생 전문 브랜드 랩신은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더 건강한 병원 생활을 위한 위생 기부’의 일환으로 최근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1억 상당의 손 소독제 1만 7천 개를 전달했다. 랩신은 최근 주요 대학병원에 손 소독제를 기부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부받은 손 소독제는 병원 내에 비치되어 의료진과 환자의 개인 위생관리에 쓰일 예정이다. 음료 브랜드 동아오츠카는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한 본원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온 음료 1,500개’를 지원했다. 동아오츠카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를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의료진과 교직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동아오츠카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음료와 재난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재난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뜻깊은 병원발전기금 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주)UBASE는 중증치료 환자 의료지원금으로 5백만 원을 지원했다. 또, 과거에 본원에서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았다는 익명의 기부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기탁했다. 이 익명의 기부자는 지난해에도 병원발전기금 5천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신용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따뜻한 기부 행렬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힘쓰고 있는 우리 병원 교직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우리 병원도 권역 내 중증 환자 치료와 의료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에 더욱 힘써, 건강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SCH플랫폼’의 재발견

‘서석조SCH플랫폼’이 이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순천향대병원 순천향대학교 설립자 항설 서석조 박사의 서거 20주기와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의학 발전의 위대한 업적인 병원·대학·의학연구의 통합 시스템 구현의 토대인 ‘서석조SCH플랫폼’의 재발견과 이를 기념하고 후학들에게 표상이 되고자 항설박사의 일대기를 연재합니다.



백병원 최고의 ‘어텐딩’ 의사

병원 활성화를 위한 고민

“스타급 의사를 모셔라.”

백병원은 1932년 경성의학전문학교 외과 주임교수였던 백인제 박사가 우에무라외과병원을 인수하여 위탁 경영으로 출발한 병원이다. 일제강점기에 지은 아담한 외과병원을 사용해오던 백병원은 1970년 백낙조 이사장 취임과 함께 재도약에 나섰다.

2년 후인 1972년 3월에 병원 건물을 증축하고 150개 병상과 16개 진료과를 둔 현대식 종합병원으로 탈바꿈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병원을 활성화시킬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장안에 이름난 스타급 의사들을 모셔오는 것이었다. 백병원의 레이더망에 걸린 의사 중 한 사람이 바로 서석조 박사였다. 서 박사는 고려병원이 설립될 때 의학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삼성 이병철 회장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자리를 옮겼으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백병원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자 내과부장의 자리를 받고 바로 옮겨갔다. 그는 옮기는 병원마다 환자들을 구름같이 몰고 다니는 말 그대로 스타 의사였다. 서 박사가 백병원으로 옮겼다는 소문이 나자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루 6백만 원 수입

당시 병원마다 어텐딩(attendng) 제도라고 해서 의사가 개인적으로 환자와 수입을 관리하고 약국도 따로 두어 수입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병원과 분배하는 관행이 있었다. 미국식 개방형 병원 모델로 기업으로



서석조 박사는 옮기는 병원마다 환자들을 구름같이 몰고 다니는 스타 의사였다. 서 박사가 백병원으로 옮겼다는 소문이 나자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따지면 일종의 소사장제 같은 개념이었다. 대형병원 내에서 조그만 나의 병원을 운영하는 셈이었다. 서 박사는 가톨릭대학 성모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함께 하던 제자들과 함께 백병원의 어텐딩 시스템으로 진료를 했다. 서 박사팀은 백병원에서 어텐딩을 통해서 엄청난 의료 파위를 보여주었다. 재직 시 하루에 6백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것은 거의 중견병원 하나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지금도 6백만 원이라면 큰돈인데 45년 전에 그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이었을지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의사로서 서 박사의 인기와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다.

“서 박사님은 환자를 돌보는데 뭔가 독특한 힘이 있었어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약을 많이 쓰지 않았고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병이 완쾌되도록 편안하게 해주고 환자와 한 몸이 되도록 노력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했지요.” 백병원을 운영했던 인제학원 백낙환 당시 이사장의 회고다. 어텐딩 시스템을 통한 의사로서의 성공은 다시 한 번 서 박사에게 자신의 병원 설립이라는 꿈을 꾸게 해주었다. 이제는 직접 도전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어텐딩 시스템을 통해서 주머니도 두둑해졌다.

구체화되어 가는 계획

백병원에서 2년 동안 어텐딩 의사를 하면서 서 박사는 고려병원에서보다 훨씬 큰돈을 만지게 됐다. 그러면서 새로운 병원에 대한 꿈도 구체화시켰다. 병원을 설립하려면 의사도 의사지만 아무래도 병원 행정이나 사무를 아는 사람이 필요했다. 서 박사가 처음 떠올린 사람은 고려병원에서 사무국장을 하던 김현우 씨였다. 김 사무국장은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한 후 건강 때문에 조그만 과수원을 하면서 쉬고 있었다. 서 박사는 그를 직접 찾아갔다. “내가 병원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 사무국장은 서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다

면서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종합병원 규모의 대형병원을 혼자 힘으로 설립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가 먼저 떠올린 사람은 함께 백병원에서 근무하던 김학현 교수였다. 서 박사는 김학현 교수와 함께 병원 설립을 논의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다. 김 교수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갖고 있는 돈이 많지 않았는데 다행히 주변에서 돈을 대겠다는 사람이 있어 함께 데리고 나왔다.

50대 50으로 투자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다가 투자자가 막판에 ‘못 하겠다’면서 빠져버리고 말았다. 어쩔 수 없이 서 박사가 돈을 전부 대면서 병원 설립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 총무처에서는 30%를 먼저 내고 5년 동안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당시 평당 7만원에 1천2백 평 정도의 땅을 샀는데 초기 비용 30%만 해도 3000~4000만 원 정도였다. 우선 땅값은 서 박사가 개인 부담으로 해결을 했다. 1973년 서 박사의 생일인 4월 2일 기공식을 했다. 땅은 간신히 샀지만 대형 병원을 지으려면 건축비부터 의료설비 비용까지 무한정 돈이 들어갔다.

리스제도의 힘을 빌다

땅은 샀지만 병원을 짓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당장 돈이 문제였다. 주변의 사람들의 돈을 빌리고, 빌리고 또 빌렸다. 누나의 집을 전부 맡겼고 아는 사람들에게도 빌렸다. 그나마 당시 막 리스제도가 생겨서 그 덕을 조금 볼 수 있었다. 병원에 들어가는 의료 장비들 대부분을 리스로 빌렸기 때문에 목돈을 들이지 않고 좋은 기기들을 도입할 수 있었다. 주변의 아는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김성모 의원은 3,000~4,000만원 상당의 시멘트를 기증했다. 김종필 총리도 인공신장을 기증하기도 했다. 10월 보건사회부로부터 전문의 양성 수련병원으로 지정되었고 12월에는 국방부로부터 군 전문의 요원 양성병원으로 지정되었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서은숙

소아청소년과 교수
서울병원

한결같은 어린 환자의 엄마 같은 의사

15년간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공헌 '옥조근정훈장' 수훈

글_전진웅 사진_최종엽

이것 저것 관심이 많아 '오지랖' 소리를 듣기도 하는 의사, 다시 태어나도 소아청소년과를 선택하겠다는 의사, 매 순간 의사로서 행복감을 느끼는 의사. 어느덧 정년을 2년 남긴 서은숙 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떠올리며 붙이는 수식어다. 그녀는 어린 환자들을 돌보는 것 외에도 15년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보상심의회와 피해조사반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여러 발자취를 남겼다.

名醫

서은숙 교수는 경상북도 영천에서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초등학교까지는 대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항상 밝고 쾌활했지만 지는 것만큼은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친구가 KBS어린이 합창단에 간다며 노래 연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도 막무가내로 우겨서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랑 제가 KBS합창단에 합격했습니다. 그만큼 욕심이 많았던 거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쌤이 많다고 붙여준 별명이 '서쌤숙'이었어요(웃음)" 서 교수의 어린 시절 처음 꿈은 약사였다. 사촌고모들이 모두 약사였기에 그 모습이 어린 마음에 동경의 대상이었다. 중학생 시절 그 꿈이 바뀌는 계기가 생겼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당시 '닥터 게논'이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여자 의사도 괜찮은 직업 같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찰공무원이어서 엄격했지만 항상 인자했던 아버지의 말을 늘 하늘처럼 생각했던 서 교수에게 '의사'라는 새로운 꿈이 생기게 됐다.

순천향 30년, 질병관리청 15년의 인연

감염병 예방 관리 공로로 '옥조근정훈장' 수훈

고등학교 시절, 전교 60등 안에 들어야 갈 수 있는 특별반에 들

어갔지만 수학실력은 다소 약했다. 그래서였는지 "의대에 가겠다"는 말에 돌아온 선생님의 답은 "네가 의대에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였다. 하지만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었던 서 교수는 끝내 이화여대 의과대학 입학에 성공했다. "의대 중에 수학2 과목 대신 과학과 수학을 연계한 과목을 보는 곳은 당시 이화여대 뿐이었거든요." 이후 경북대 의대를 다니던 지금의 남편과 만나 결혼 후 계명대 의료원에서 레지턴트와 스태프로 4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 다음으로 인연을 맺은 곳이 바로 순천향대학병원이다. 전공과목으로 처음부터 서 교수가 원했던 것은 '소아청소년과'였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을 순천향과 함께 했다.

"저는 어른보다는 아이들을 보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손에 메스를 쥐는 일도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리고, 가장 하고 싶었던 과가 소아청소년과였습니다. 아마 다시 태어나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아이들을 돌보며 지내던 서 교수는 활동하던 학회의 우연찮은 추천으로 질병관리청과 연을 맺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병원업무와 병행하면서도 질병관리청 업무에 힘든 줄 모르고 살았던 거 같아요. 15년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처음처럼 변함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2년 당시 예방접종은 거

의 소아백신이 전부였다. 전문 역학조사관도 거의 없었다. 일부 의사들이 병역을 대신해 조사관으로 활동하는 수준이었다. 그만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다. “실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가능한 보상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때론 문제가 되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문 인력이 700명이 넘고 많은 시스템의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사가 100점 만점에 10점이라면 지금은 90점 수준까지 높아졌어요.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서 교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5년간 예방접종 피해조사와 보상심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시스템을 보완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공헌해 왔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0년과 2011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유공 등으로 대통령 표창을,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정부로부터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기에 이르렀다. 지난 12월 3일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1 감염병관리 유공 포상 수여식’에서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것이다.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닌, 그동안 함께 고생하신 많은 분들과 받는 훈장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여러 감염병으로 지금도 현장에서 고생하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이들과 눈높이 맞추는 친구같은 의사

서 교수가 3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어린 환자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들과 먼저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것이었다. 권위 있는 의사보다는 때론 친구 같고, 때론 엄마 같은 의사가 되고자 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의 입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환자의 이야기와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치료의 일부라 생각하거든요. 가끔은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오지랖이 넓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네요(웃음).”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써 온 분야는 ‘소아신경’ 분야다. 처음 전문의가 되었던 당시만 해도 ‘소아신경’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야였다. 그래서 깊이 있게 전문적으로 연구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었다. 하지만 몇몇 고마운 선배들은 서 교수의 소아신경 분야 연구에 많은 힘을 보태 주었다. “5년 선배였던 당시 연세대세브란스 병원 정희정 교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우르며 여러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

30시간, 40시간 근무를 하고 며칠씩 당직을 서도 당직비 한 푼 받지 못하던 시절에도 많은 선배들은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고 성심껏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후배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또 환자와 더 많이 대화를 통해 그 마음을 읽으려 노력하는 행복한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염병 예방 관리 공로로 ‘옥조근정훈장’을 수훈한 서은숙 교수.

그리고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이자 동년배인 김홍동 교수님 역시 기초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아무런 대가없이 저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이런 선배들의 도움은 지금도 서 교수가 소아신경 분야를 연구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 분야 전문가가 되는 토대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순천향은 가족 같은 병원...후배들이 후회 없는 의사 되었으면

서 교수는 “저는 유명한 의사도 아니요, 남들보다 더 많은 논문을 쓴 의사도 아니지만, 누구보다 후회 없는 의사”라고 전했다. 자신이 처음부터 가슴에 새겨놓은 의사로서의 참된 모습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환자를 보던 바쁜 시절에도 학회와 질병관리청 등의 활동을 게을리 한적 없다. “후배들 역시 먼 훗날 후회하지 않는 의사가 되었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30시간, 40시간 근무를 하고 며칠씩 당직을 서도 당직비 한 푼 받지 못하던 시절에도 많은 선배들은 시간을 쪼개어 공부하고 성심껏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여건이 많이 나아졌잖아요? 후배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또 환자와 더 많이 대화를 통해 그 마음을 읽으려 노력하는 행복한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기회가 되서 나랏일이나 새로운 병원일이 주어진다면, 망설이지 말고 일단 먼저 해보면 그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조언했다.

서 교수는 이제 정년을 2년 남짓 남기고 있다. 하지만 정년 후에도 의사로서 그동안 해온 일들 중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은 계속할 생각이다. “사실 저는 집순이거든요(웃음). 정년 후에는 여자이자 엄마로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만 질병관리청과 같이 그동안 몸담았던 일들에 대해서는 부름만 있다면 계속 할 생각이예요.”

순천향대학병원에 대한 남다른 애정도 표현했다. “비록 제가 순천향대학교 의대 출신은 아니지만, 30년을 함께 하면서 느낀 점은 4개 병원 모두가 한 가족과 같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오랫동안 이 병원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고 입원도 경험했거든요. 모든 순천향대학병원들이 원내 직원들 뿐 아니라 환자들과도 마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는 점은 다른 병원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일이라 생각해요.” 서 교수는 “누군가 물어본다면 항상 최선과 정성을 다하는 병원, 환자 한명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병원,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권하고 싶고, 또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병원이라 자부한다.”며 병원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았다.

전립선암 등 ‘로봇수술’ 서부권 맹주로 우뚝!

최정에 의료진 구축...고난이도 수술로 경쟁력 입증

글_전진용 사진_한남기



현대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비뇨기계의 질환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부천병원 비뇨의학과는 비뇨기종양, 요로감염, 남성의학, 소아비뇨기학, 여성비뇨기학, 배뇨장애, 내비뇨기학 등 세분화된 분야에 대한 전문 의료진의 완성도 높은 치료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각 분야 전문성을 지닌 교수들을 주축으로 전공의, 비뇨의학과 전문 간호사들과 함께 최선의 검사 및 치료기구를 갖추고 모든 환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여러 내시경, 요류역학 검사기, 발기부전 검사기, 초음파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자들을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치료하기 위해 체외충격파쇄석기, 요실금 치료기(체외자기장치료기, 바

이오퍼드백), 홀mium레이저 등도 갖추고 있어 광범위한 수술에서 내시경 수술까지 다양한 시술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2017년에 처음 도입한 로봇수술은 부천병원 비뇨의학과만의 특화된 분야 중 하나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로봇을 통한 다양한 수술기법 도입과 성공적 수술사례로 이 분야 서부권의 맹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로봇 이용한 고난이도 수술 기법, 의료계가 '주목'하는 비뇨의학과

지난 2019년 이상욱 교수는 로봇을 이용해 여러 개의 종양을 신속히 제거하는 '로봇 부분 신장 절제술'을 통한 '다발성 신장암' 수술에 성공했다. 로봇수술을 받는 환자 중 90%가 암환자로 로봇을 이용해 2개의 종양을 20분 이내 제거하는 데 성공함으

로 비뇨의학과는 여성의 생식기를 제외한 남성과 여성의 요로-생식기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이다. 특성상 전립선, 생식기, 발기, 성병, 불임 등 환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부분에 대한 세밀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전문분야다. 부천병원 비뇨의학과는 이를 위한 첨단 의료설비와 각 분야 최고 전문성을 지닌 교수진, 그리고 숙련된 전담간호사로 구성된 최정에 의료팀이다. 특히 로봇을 도입한 특화된 수술기법은 서부권 최고로 평가받는다.

기도 했다. 같은 해 10월에도 이 교수는 경인 지역 최초로 방광암과 전립선암을 2가지 수술법으로 동시에 제거하는 데 성공해 이 분야 최고 수준임을 재확인시켰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다빈치 Xi 로봇수술로 '희귀 거대 요막관암'을 제거하는 데 성공해 다시금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도 부천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김영호·이상욱·이광우·김웅빈 교수)은 지난해 11월 소변 검사를 통해 난치 질환인 '궤양성 간질성방광염'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새 바이오마커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는 등 비뇨의학과 분야 최고의 연구팀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바이오마커(biomarker, 생체표지자)는 체내 단백질이나 DNA, RNA, 대사 물질 등으로 몸속 변화를 알아내는 지표다. 이 연구와 관련해 김영호 교수는 "통증성 방광증후군이 심해지면 간질성방광염으로 진행되는데, 기존에는 진행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이번 발견으로 통증성 방광증후군 환자에게 내시경검사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난치 질환인 '궤양성 간질성방광염'을 조기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질성방광염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20년 전부터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개척해온 김영호 교수는 본원 초대 로봇수술센터장과 제9대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장을 역임했으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를 만들어 단장을 맡는 등 연구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이광우 교수는 이상욱 교수와 함께 로봇수술, 비뇨기종양을 전문분야로 로봇수술센터장을 역임했고, 현재 부천병원 교육수련부장을 맡고 있다. 김웅빈 교수는 신장이식 수술과 로봇수술·복강경 수술에 뛰어나며, 여성비뇨기학에서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 교수와 전공의, 전담간호사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분위기 메이커다.

부천병원 비뇨의학과는 검증된 연구 및 수술 경쟁력 뿐 아니라 각 구성원간의 완벽한 팀워크, 환자와의 끈끈한 유대감으로 매년 실시되는 병원평가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병원 내 '고객 칭찬 글'에도 역시 가장 많이 소개되는 팀으로 꼽힌다. 

로써, 다발성 신장암 치료에 로봇수술이 더욱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2020년에는 교통사고로 한쪽 신장의 신우요관 이행부가 파열된 17세 환자를 상대로 국내 최초로 '로봇 신우요관문합술'을 성공시켜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신우요관 이행부의 신우와 요관이 함께 파열된 환자는 근치적 신장 절제술을 진행한다. 하지만 17세의 어린 환자임을 고려해 신장을 절제하는 대신 수술 부위를 3D 영상으로 15배까지 확대할 수 있고 자유롭게 회전하는 로봇 팔을 이용하는 로봇수술을 택했다. 정밀한 로봇수술을 통해 파열된 신우 부분만 잘라내고 소변이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든 후, 기존의 요관을 연결하는 고난도의 '로봇 신우요관문합술'에 성공했다. 이 성공사례는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World Journal of Clinical Cases'에 게재되

INTERVIEW

김준모 비뇨의학과 교수(진료과장)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지역사회에 뿌리 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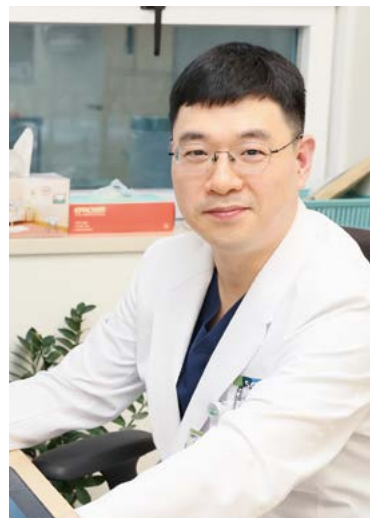
지난 2002년 3월 처음 부천병원과 인연을 맺은 김준모 교수는 올해 20년째가 된다. 그간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비뇨의학과와 발전을 함께 이끌어 온 장본인이다. “20년간 모든 의료진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 이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젊은 교수들의 열정적인 연구 활동은 저희 비뇨의학과와 큰 힘이자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비뇨의학과는 타 부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구성이지만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첨단 의료설비들, 실력 있는 의료진, 탄탄한 팀워크는 환자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요소이며 의료진들의 지속적인 학회, 연구 활동은 새로운 수술기법 도입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비뇨의학과는 병원 내 부서 평가에도 전체 2위를 차지했다. 고객들이 보내주는 칭찬 글도 직원 한 명당 적게는 2~3개, 많게는 5~6개에 달한다. “능력 있는 교수들뿐 아니라 유능하고 친절한 전담간호사와 외래 간호사들 역시 저희 비뇨의학과를 빛나게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비뇨의학과 특성상 환자들에게 민감한 요소들이 많지만, 환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로 좋은 평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 교수는 여전히 조금은 부족한 인력구성을 위해 새로운 스태프 확충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뛰어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특성화되고 있는 로봇센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 등에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 교수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의 비뇨의학과로 성장할 수 있게 힘이 되어 준 모든 팀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우수한 후배 의료진들이 더욱 부서를 성장시켜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INTERVIEW

이상욱 비뇨의학과 교수

“로봇수술로 서부권 맹주로
자리 잡을 것”

이상욱 교수는 부천병원 비뇨의학과와 로봇수술을 주도하고 있다. 순천향대 부속 병원 4곳 가운데 유독 부천병원이 로봇수술이 많은 이유다. “2017년 4월 로봇이 처음 도입된 후 그해 6월부터 로봇수술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제는 자리를 잡아 연간 150건 이상 로봇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봇수술이 특



히 많이 적용되는 것이 전립선암이다. 부천병원에서 로봇을 통한 전립선암 수술은 1년에 6~70건에 달한다.

“다양한 로봇수술 환자 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며 수술을 통한 환자의 회복력도 비약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전공의가 다소 부족한 상황이지만 로봇수술을 통해 환자 위험성도 크게 낮췄습니다.” 짧은 도입 기간에도 로봇수술을 특화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교수의 노력이 큰 힘이 됐다. 로봇을 먼저 도입한 메이저 병원을 찾아 기법을 배우고, 이를 부천병원에 맞는 방식으로 응용해 적용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이 교수는 ‘로봇 부분 신장 절제술’로 ‘다발성 신장암’ 수술에 성공했으며 국내 최초로 ‘로봇 신우요관문합술’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또한, 경인 지역 최초로 방광암과 전립선암을 2가지 수술법으로 동시에 제거하는 데 성공해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현재 1년에 100~150건 수준의 로봇수술 건수를 200회 이상으로 끌어올려 이 분야 서부권 내 맹주로 만들고 싶습니다.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더 큰 병원을 찾을 필요 없이 우리 병원에서 믿고 수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는 “저희과는 교수진 전부가 순천향대 동문으로 이루진 선후배 관계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추며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아직 로봇이 도입되지 않은 천안병원에도 로봇이 도입되면 부천·서울병원과 협력해 순천향대 부속 병원 전체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INTERVIEW

문진형 비뇨의학과 전담간호사

“업무의 강도가 높지만,
전담 간호사로서의
금지도 높아”

비뇨의학과는 특성상 남성 환자의 예민한 부분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타 과에 비해 남자 간호사의 비중이 높다. 업무의 강도 또한 높은 편이다. 원래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공했지만, 미래 비전을 보고 간호사의 길을 택했다는 문진형 전담간호사는 “힘든 만큼 보람된 일”이라 전했다. “외래에서 진료 보조 및 각종 처치, 입원 중 교육과 회진 관리, 수술 보조 등 환자의 외래, 입원, 수술, 퇴원까지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하기에 타 과에 비해서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요구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만큼 전문영역이라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문 간호사는 “처음에는 남자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생소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비뇨의학과 특성상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다. 업무 수행 시 환자의 민감한 부위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자분들이 불편함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게 세심하고 전문적인 자세로 치료를 하고, 치료자 외에는 환부를 볼 수 없도록 처치 전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에게는 매우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전담 간호사로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목표라는 문 간호사는 “비뇨의학과 모든 의료진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자부하며 본인 역시 힘을 보태려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의료진의 피로감이 극심한 만큼 환자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모든 의료진이 본인의 건강도 꼭 먼저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암 환자가 암 환자에게 내민 따스한 손길

유방암 투병 환자, 암환자 위해 500만원 기부

글_전진용 사진_전용철

투병자들이 겪는 고통과 절망은 본인이 아니고서는 가족조차도 다 알 수가 없다. 그러기에 가장 아프고 힘든 이는 결국 투병자 자신이다. 환자는 직접 겪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고통 외에 다른 이들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천안병원에는 자신이 암 투병중임에도 암환자를 위해 따스한 손길을 내민 사연이 있어 훈훈한 감동을 전한다. 바로 최○○ 환자 이야기다. (기부자의 요청으로 인해 익명으로 소개합니다)

충남 홍성군의 한 시골 마을에서 남편, 아들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 온 최씨는 화려하고 넘치는 삶은 아니었지만 가족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큰 걱정 없이 살아왔다. 평상시 큰 건강상의 문제없이 사랑하는 가족과 소확행을 이어 온 것이다. 하지만 2년마다 실시하는 정부 정기검진을 받은 후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다. 유방암 확률이 높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동안 아무런 증상이나 징후를 느끼지 못했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 “처음에는 실감이 잘 나지 않았지만, 암이라는 소리에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지만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무섭지 않은 사람을 없을 거예요.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근에는 암 치료를 할 만한 대형병원이 없기에 찾은 곳이 바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었다. 주변에서도 천안병원을 추천하는 이들이 많았다. “많이 두렵고, 가족들 역시 많이 걱정했지만 순천향대학병원이 충청 지역 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라는 점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검진하는 과정에서도 친절하게 마음을 안정시켜 주던 의료진들로 인해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 아픔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떠올리다

지난 2021년 11월 8일 처음 천안병원에 내원한 최 씨에게 결국 좌측 유방암 진단이 내려졌다. 나쁜 소식이었지만 매우 위중한 상태는 아니라는 의료진의 말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했다. 최 씨를 담당한 이는 천안병원 외과 한선욱 교수였다. 한 교수는 외과 전문의로 전문진료 분야는 유방암 및 갑상선암클리

닉, 내분비외과다. 특히 한국유방암학회 술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만큼 유방암 수술에 있어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최고 전문의 중 한명이다. “한선욱 교수님이 직접 저를 담당하시면 마음의 안정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주셨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많은 대화를 통해 병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 다시 한 번 전하고 싶습니다.” 최 씨는 지난 11월 16일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매우 성공적인 수술로 이제는 방사선 치료와 호르몬 치료를 하며 몸 관리를 통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성공적인 수술이었지만 수술과 치료, 회복 과정에서 느낀 고통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때 눈에 들어 온 것이 바로 병원에 있는 많은 다른 암 환자들이었다. “저도 힘들었지만 저보다 더 고통스럽고 절망하는 많은 환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 씨에게는 다행히 그동안 들어왔던 보험이 있었다. 덕분에 수술과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충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부의 여유도 생겼다. 그때 생각이 떠오른 이들이 바로 자신과 같은 암환자들이었다. 조금 여유분의 돈을 암환자들을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가족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남편과 아들 모두 흔쾌히 공감해 주었으며 오히려 응원해 주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천안병원 의료진에 기부 의사를 밝히 최 씨는 천안병원 사회사업팀을 통해 500만원을 전달했다. “큰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보다 더 고통 받고 어려움에 있는 암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쓰으면 좋겠습니다. 생애 첫 기부인데, 기부란 참 기분 좋은 일인 거 같습니다. 환자들의 완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 씨는 지난 12월 20일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다. 총 5번의 방사선 치료를 마치면 5년 정도 약물치료를 하며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시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에 행복감을 느낀다.

“제 의견을 존중해 준 가족들, 저를 돌봐주신 한선욱 교수와 모든 의료진들, 사회사업팀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인지 느꼈습니다. 새해 들어 모두가 다시 건강해지길 기원합니다.” 최 씨는 다시 ‘소확행(小確幸)’의 삶으로 돌아갈 생각에 마음만은 이미 암을 극복했다. 



최첨단 시설 갖춘 '수면다원검사실' 오픈

수면장애로 인한 심각한 성인병 조기 진단 및 치료

서울병원은 12월 6일 본관 10층에 신경계 검사실과 수면다원검사실을 새롭게 오픈했다. 동별관 2층 신경과 외래에 있던 2개의 검사실과 본관7층 병동에 있던 뇌파검사실을 본관 10층으로 통합 이전하고, 수면다원검사실을 신설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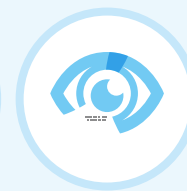


수면다원검사

※ 수면 관련 질환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이자 다양한 수면장애 진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표준검사.



뇌파



안구운동



수면 시 근육의 움직임



호흡



산소포화도



비디오 수면 행동 분석

기존의 콜센터와 전공의숙소 4실을 이전하고, 전체 철거 후 구조 안전 검토 및 부분 보강 작업과 검사실 전자파 차폐공사, 수면다원검사실 방음 공사, 외래 수준의 인터넷공사를 마쳤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 중 뇌파, 안구운동, 근육의 움직임, 호흡,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고, 비디오로 기록된 환자의 수면 중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수면과 관련된 질환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이다. 이는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및 수면 중 이상행동 등 다양한 수면장애 진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표준검사다.

이번에 개소한 순천향대학교병원 수면다원검사실은 수면 시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데이터화 및 분석하는 최신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독립된 수면실과 함께 개별 파우더룸, 화장실을 구비해 환자가 편안하게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완비했다.

새롭게 마련된 수면다원검사실을 통해, 신경과, 이비인후과를 비롯하여,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등 여러 진료 과와 협진을 시행하여,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주간과다졸음증, 만성불면증 등의 수면질환의 진단을 넘어서, 이와 연관된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 및 비만 등의 심각한 성인병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주병역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고혈압 환자의 30%는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하고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경우 뇌졸중 발생위험도 약 4배 정도 올라가며, 이외에도 수면무호흡증은 심부전, 교통사고 위험, 탈모 등 2차 질환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 의심 시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이를 조기에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은 2014년 2만6655명에서 2017년 3만1377명으로 증가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유병률은 남성이 4~5%, 여성이 2~3%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 환자의 30%는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하고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경우

뇌졸중 발생위험도 약 4배 정도

올라가며, 이외에도 수면무호흡증은

심부전, 교통사고 위험, 탈모 등 2차

질환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 의심 시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이를 조기에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학 연구 활성화' 총력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최근 '순천향 의학연구 학술대회'와 '순천향 임상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정부 지원과제에 9건 선정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학 연구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2021 순천향 의학연구 학술대회' 성료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 순천향대 부천병원, 순천향대 의과대학, 순천향대 BK21 교육연구단이 공동주최한 '2021 순천향 의학연구 학술대회'가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본 학술대회는 2018년부터 순천향대학교와 부속 병원 교수진이 모여 기초 의학과 임상 의학이 융합된 중개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대회다. 이번 학술대회는 '순천향 바이오의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최근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 '미래 의학의 하이라이트',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연구 환경 변화를 다룬 'COVID19 pandemic과 의학연구' 등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장뇌축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센터' 설립 및

'제1회 순천향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 개최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국내 최초로 '장뇌축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제1회 순천향 임상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장뇌축 연구(Gut-Brain Axis)'는 장과 뇌의 상호작용을 연구해 난치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 등을 개발하는 분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Microbiome old concepts & new challenges'를 주제로 열린 '제1회 순천향 임상 마이크로바이옴 심포지엄'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연구를 선도하는 국내 연구진과 순천향대 의과대학

임상 교수들이 모여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현황과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연구진, 정부 지원 과제 9건 선정



지원받게 됐다. 이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진료·수술 외에도 연구에 매진한 결과다. 선정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1건'과 '생애첫연구 지원사업 5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주관하는 '국가표준 기술 개발 및 보급 사업 2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하는 '기술이전 사업화 1건' 등 총 9건이다.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대학병원의 본질인 '첨단 미래 의학 연구와 임상 적용'에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건강을 선물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경기도 1위, 전국 2위'

2021년 응급의료 유공 기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경기도 1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또, 2021년 응급의료 유공 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했으며, 순천향대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시설, 장비, 인력 등 종합 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중증 응급환자 책임진료'를 평가하는 ▲중증 상병 해당 환자 분담률, ▲중증 상병 해당 환자 구성비, ▲최종 치료 제공률, ▲전입 중증 응급환자 진료 제공률 지표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받았으며, 가산점을 포함한 최종 점수에서 경기도 1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김기운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최근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전국적으로 1천 명을 넘어서고, 지역사회 감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의 최전방 역할을 하는 만큼 모든 의료진이 사명감을 가지고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응진 병원장은 "장기간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가운데, 우수한 평가 결과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까지 받게 되어 모든 직원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비롯해 다른 질환의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모든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들이 응급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02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경기도 1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천안병원 2021년 수상내역 총정리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대통령표창 등 다양한 수상 줄이어
방역전선에서도 사회적 책임 다한 결과, 순천향 위상 높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 전체의 침체 분위기 속에서도 천안병원의 저력과 실력 발휘는 여전했다. 그 결과 지난 2021년에도 천안병원을 치하하는 수상들이 줄줄이 이어졌다. 내역을 살펴보면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표창 등 정부와 지자체, 학술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훈격의 수상소식이 날아들었다. 모두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천안병원 교직원들이 사회적 책임과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 이성열 양광익
조성식 정운호 오재상 김훈동 석진명
이동욱 이형남 교수와 우수현 전공의

2021년을 빛낸 9+1명의 닥터 어벤저스

교수들은 환자를 돌보는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주경야독, 더 나은 환자치료를 목표로 교수진은 연구에 매진했다. 여러 전문 진료분야에서 치료법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빛나는 연구 성과들이 발표됐다. 또 지역사회 안전망인 응급환자진료 시스템 및 위 기대응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정부와 지자체, 관련 학회 등은 천안병원의 그러한 공로에 다양한 표창으로 화답했다.

▲피부과 이성열 교수(백반증, 건선 등의 난치성 피부질환 연구_대한 피부과학회 '스티펠 학술상'), ▲신경과 양광익 교수(수면장애 진단과 치료 연구 등_대한신경과학회 '자랑스런 신경과인 상'), ▲소화기 내과 정운호 교수(다이오드 레이저가 내시경 점막하박리술에 사용되는 전기소작 장비를 대체할 수 있을까? 논문_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우수논문상'), ▲신경외과 오재상 교수(혈전을 동반한 거대 동맥류의 결찰술_대한뇌혈관외과학회 '우수연제상'과 한국 급성 뇌경색 환자의 혈전용해술과 혈전제거술에 따른 단기 및 장기 사망률 연구_건강

보험심사평가원 '우수논문상'), ▲안과 김훈동 교수(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생한 망막 정맥혈전증 및 망막 출혈 증례보고_아시아태평양 유리체망막학회 '최우수 초록상'), ▲신경과 석진명 교수(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다발성경화증과 시신경척수염 스펙트럼 장애의 감별_대한신경과학회 '우수 구연발표상'), ▲영상의학과 이형남 교수(폐동정맥 기형 및 유사 혈관성 병변_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베스트포스터어

워드 대상'), ▲진단검사의학과 우수현 전공의(코로나19 환자에서 Lupus anticoagulant의 임상적 의의_대한진단검사의학회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응급의학과 이동욱 교수가 응급 환자들의 빠른 이송과 치료에 기여한 공로로 소방청장 표창을, ▲영상의학과 조성식 교수가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소비자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표창을 받고 있다.

질병·사고 예방 및 정부 정책수립 기여

천안병원은 경영에 늘 사회적 책임의 비중이 높다. 향설박사의 '인간사랑'과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리라'는 설립이념에 입각한 병원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천안병원은 개원 이래 줄곧 지역사회 발전의 큰 동력으로 작용해 왔으며,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서도 다양한 역할에 충실해오고 있다.

2021년에도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천안병원은 대통령상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정보 보고'와 질병관리청의 '퇴원손상심층조사'에 적극 참여해 전국 위해정보 보고기관(소비자안전센터)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퇴원심층조사'에서도 적극 참여해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 국가손상감시사업인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전국의 100병상 이상 표본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무기록 조사다. 한편, 전은주 의료정보팀장도 관련해 충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의료질향상활동 '우수상', 적정관리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개선활동도 '엄지 척'

천안병원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 활동을 펼친다. 그 결과 매년 실시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모든 적정성평가에서 늘 좋은 성적을 거둔다. 2021년도 위암, 유방암을 비롯해 폐렴, 정신건강 입원영역 등에서 최우

수 의료기관으로 공인 인증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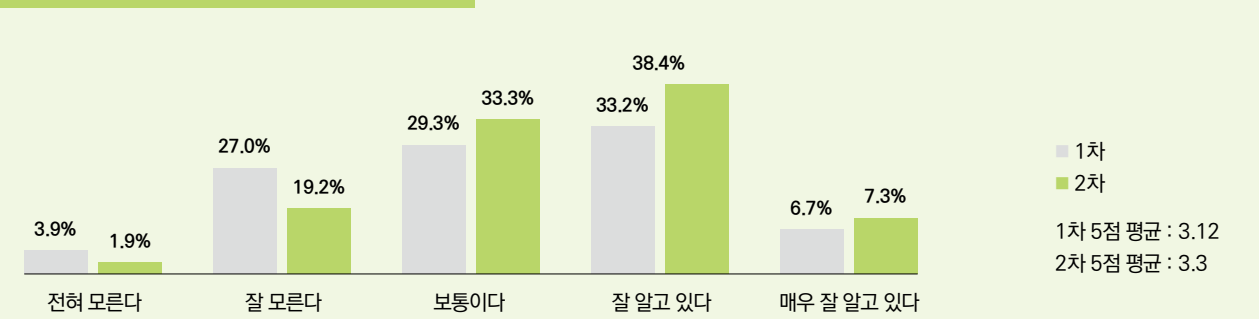
특히 정신건강 입원영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의료질 향상학회가 주최한 '2021년 학술대회'에서 활동 우수상을 받았다. 결핵 환자들의 예방과 관리도 철저히 함으로써 지역 대표로 수상하기도 했다.

순천향대 구미병원 환경독성 환경보건센터, 서울특별시 독성물질중독관리센터와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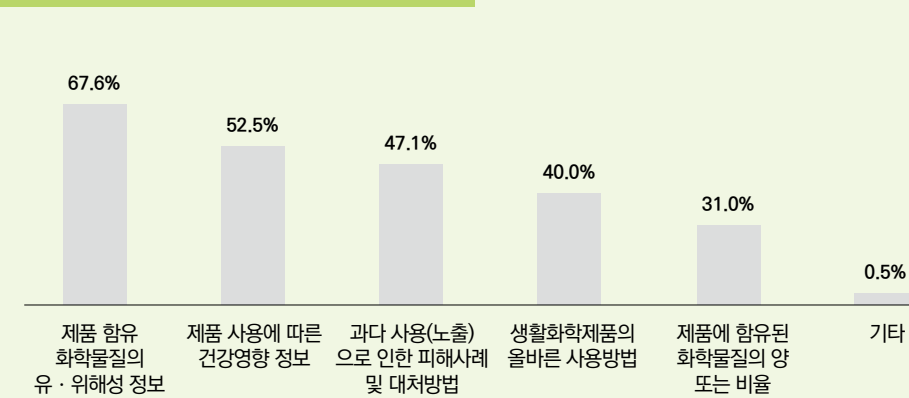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환경독성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윤성용)는 11월 24일 구미금오산호텔에서 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와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살균,소독제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 인지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추가 요청 정보



협약식은 윤성용 센터장을 비롯하여 이성우 센터장(서울특별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성물질 중독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정보제공 공유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독성물질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있어 공동으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한 유·위해성 정보 및 건강영향 정보를 조사 연구하며, 중독상담 콜센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외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국내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노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생활화학제품 노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및 홍보 할 예정이며, 생활화학제품 노출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 지정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환경독성 환경보건센터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5년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유·위해성 정보 수집과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지역 사회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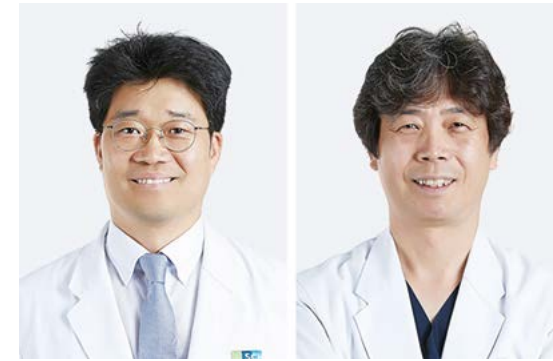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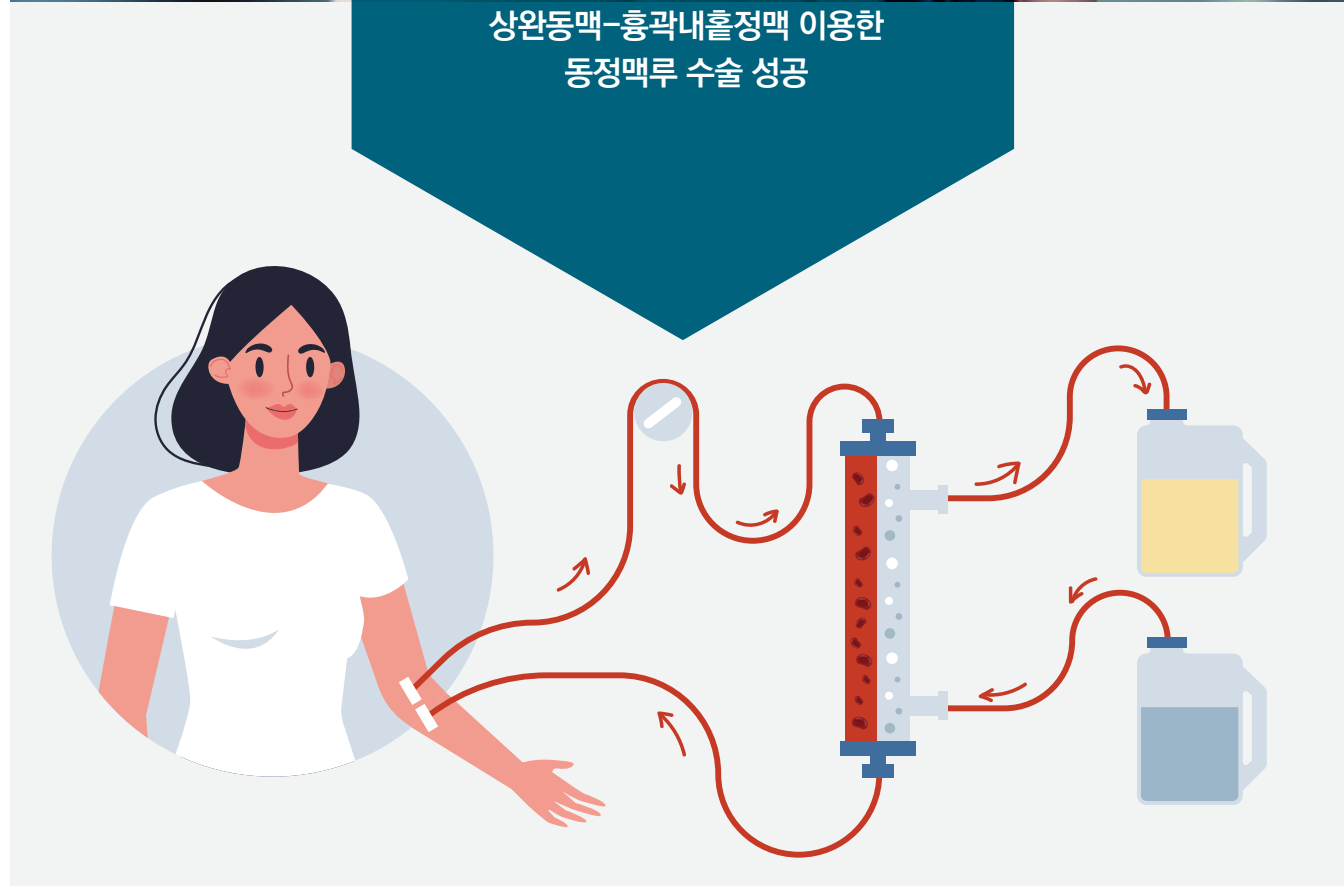


양 기관 센터장이 합의 각서를 들고 있다.



오랜 투석으로 인한 정맥 손실 걱정 없다

상완동맥-흉곽내흉정맥 이용한
동정맥루 수술 성공



순천향대 서울병원 박영우 흉부외과 교수(왼쪽)과
송단 외과교수(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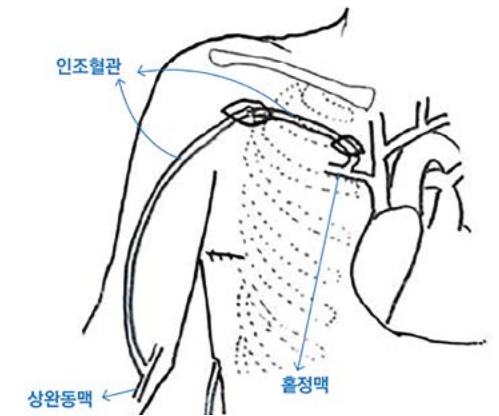
오랜 혈액투석으로 양쪽 중심정맥까지 폐쇄된 혈액투석환자에게 상완동맥과 흉곽내흉정맥을 이용한 동정맥루 수술이 성공해 안전하게 투석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박영우·송단 순천향대서울병원 교수팀 학회 보고

혈액투석은 보통 동맥과 정맥을 연결한 동정맥루를 이용한다. 오랜 기간 투석을 받다 보면 팔의 정맥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리의 정맥으로 대체하거나, 최후에는 흉곽내흉정맥을 유출 정맥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양쪽 중심정맥폐쇄가 있는 혈액투석환자는 동정맥루를 만들기 위한 유출 정맥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흉곽내흉정맥을 사용할 경우 흉골(sternum 복장뼈)을 절개하는 큰 수술이 필요해 출혈이나 감염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박영우·송단 순천향대서울병원 흉부외과·외과 교수팀은 흉골 절제술 없이 옆구리를 절개해 인조혈관으로 상완동맥과 흉곽내흉정맥을 문합하는 상완동맥-흉정맥 경흉부 동정맥루(brachio-azygos arteriovenous graft:BATAVG)를 만들었다.

수술받은 환자들은 수술 후 3일째 흉관을 제거하고,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평균 1개월 후 상완동맥-흉정맥 경흉부 동정맥루(BATAVG)를 통해 혈액투석을 시작했고, 특별한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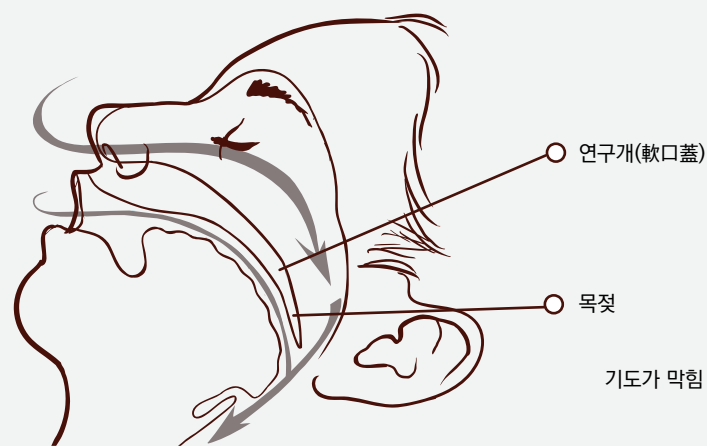
박영우 교수는 “중심 정맥까지 폐쇄된 혈액투석환자들은 더 이상 동정맥루를 만들 곳이 마땅치 않았다”며 “상완동맥-흉정맥 경흉부 동정맥루 수술은 중증 혈액투석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체 수술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영우·송단 교수팀은 수술 결과를 ‘Journal of Vascular Access’ 최신호에 ‘중심정맥 폐쇄를 가진 혈액투석환자를 위한 상완동맥-흉정맥 경흉부 동정맥루 수술(Brachio-azygos transthoracic arteriovenous grafts for hemodialysis patients with bilateral central venous obstruction: A small case series)’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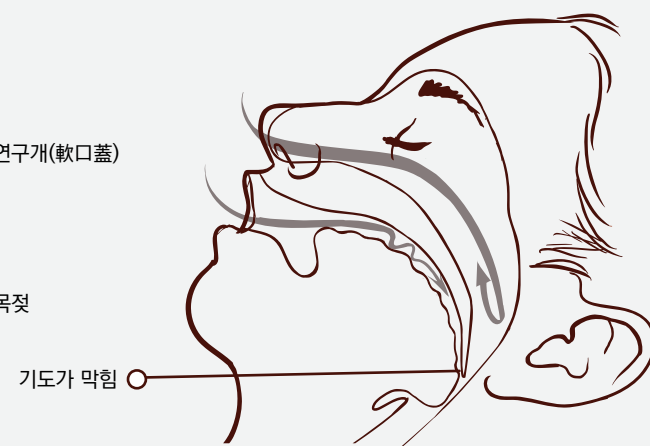


수면장애가 ‘갑상샘암’ 발생 위험 높인다

기도가 정상적인 경우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최지호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이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환자가 정상인보다 갑상샘암 발생 위험이 1.64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발표됐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최지호 교수(수면의학센터장)와 건국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조재훈 교수 공동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 갑상샘암 발생 위험 정상인의 1.64배

공동 연구팀은 정상인(992,870명)과 수면무호흡증 환자(198,574명)의 데이터에서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소득 수준 등 여러 변수를 보정한 후 갑상샘암 발생 정도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정상인보다 갑상샘암 발생 위험이 1.64배 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년층에서 갑상샘암 발생 위험이 1.68배, 20세 이상 40세 미만 젊은 층에서는 1.53배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로는 남성 1.93배, 여성 1.39배로 조사되어 남성 환자에서 갑상샘암 발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암 발생 위험 높이는 요인으로 밝혀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분절, 교감신경계 과항진, 간헐적 저산소증 등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쳐 다양한 증상과 합병증을 유발한다. 그동안 수면무호흡증과 갑상샘암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는 거의 없었던 상황이라 매우 의미 있는 연구 결과다.

최지호 교수는 “많은 연구를 통해 수면무호흡증은 갑상샘암을 비롯한 다양한 암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코를 자주 골거나, 수면 중 숨을 멈추거나, 수면시간이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졸리고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는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현재 수면다원검사, 양압기, 수술적 치료 등이 급여 화되어 있고, 전문의 진단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큰 비용 부담 없이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폐쇄성수면무호흡증과 갑상샘암 발생률의 연관성: 국민건강보험 데이터 연구(Association between obstructive sleep apnea and thyroid cancer incidence: a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study)’란 제목으로 SCIE급 국제전문학술지 ‘유럽 이비인후과 아카이브(European Archives of Oto-Rhino-Laryngology)’에 최근 게재됐다. 



‘임신성 당뇨병’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한 이유

최근 고령출산이 많아지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임신성 당뇨병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 처음으로 인지했거나 발생한 임산부의 당대사 장애를 말한다. 임신성 당뇨병으로 인해 임신초기에는 태아손상 및 자연유산이 발생할 수 있고, 임신중기와 말기에는 거대아, 고인슐린증, 사산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임신성 당뇨병이 나타났다면 임산부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혈당관리를 해야 한다. 적절한 치료와 철저한 혈당관리를 의료진과 함께 진행하면 건강한 출산이 가능하니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됐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류애리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산부인과 교수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과 분비장애...진단은 경구 당부하 검사로

인슐린 저항성과 분비장애가 임신성 당뇨병의 중요한 원인이다. 태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 즉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게 된다. 이때 정상 임산부는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지만, 임신성 당뇨병이 있는 임산부는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할 만큼의 충분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다. 진단은 임산부들에게 선별검사를 실시해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임산부를 가려내 확진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선별검사는 50g 경구 당부하 검사로, 확진검사는 100g 또는 75g 경구 당부하 검사로 진행한다.

혈당치 140mg/dL 이하라야

첫 산부인과 진료 시 먼저 위험도를 평가하고, 임신성 당뇨병의 고위험군에 속하면 곧바로 선별 검사를 실시한다. 대표적인 고위험군은 과거 임신성 당뇨병 경험이 있거나, 2형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심한 비만아 혹은 거대아 출산경험이 있는 산모, 다낭난소증후군 환자 등이다. 고위험군이 아니면 임신 24~28주 사이에 선별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식사여부나 시간에 상관없이 포도당 50g을 마신 후 1시간 뒤 정맥혈을 채취해 혈당농도를 측정한다. $\geq 140\text{mg/dL}$ 이면 확진검사를 시행한다.

선별검사치 이상이면 확진검사 실시

선별검사서 이상 소견이면 즉시 확진검사를 실시한다. 먼저 100g 경구 당부하검사를 8시간을 금식한 후에 진행한다. 공복시 혈당검사를 위해 1차 채혈 후, 포도당 100g을 복용한 후 1시간 간격으로 3번 채혈해 혈당을 측정한다. 총 4번의 채혈에서 2가지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면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혈당치 기준은 ▲공복($\geq 95\text{mg/dL}$), ▲1시간($\geq 180\text{mg/dL}$), ▲2시

간($\geq 155\text{mg/dL}$), ▲3시간($\geq 140\text{mg/dL}$) 이다. 75g 당부하 검사는 검사 전 8시간 내지 14시간 금식 후 진행한다. 공복 혈당검사 후 포도당 75g을 복용한 후 1시간 간격으로 2번 혈당을 측정한다. 총 3번의 측정에서 1가지 이상 기준치를 초과하면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기준은 ▲공복 혈당($\geq 92\text{mg/dL}$), ▲1시간($\geq 180\text{mg/dL}$), ▲2시간($\geq 153\text{mg/dL}$) 이다.

식이·운동·인슐린으로 치료

공복 당수치가 95mg/dL 이상 이거나 식사 후 2시간 당수치가 120mg/dL 이상이면 혈당조절을 위해 식이요법, 운동, 이외에도 인슐린 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균형 있는 식사는 정상 혈당치 유지뿐만 아니라 태아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치료의 핵심이다. 3식 2간식 혹은 3식 3간식을 기본으로 식단은 임상영양사로부터 처방받는 것이 좋다. 운동은 식사 직후 20~30분 정도 걷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앉아서 상체근육을 사용해 팔만 움직여도 좋다. 하지만 운동 중 자궁수축이 있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 식사와 운동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안 되거나 태아가 급격히 자란다고 판단되면 인슐린을 사용한다.

정기 검사와 태동확인 필수

인슐린 없이도 당 조절이 잘되면서 고혈압 등 다른 합병증이 없다면 28주부터 매일 태동유무를 확인한다. 40주부터는 태아 감시장치를 이용한 비수축검사, 태아 생물리학적 계수측정, 도플러 혈류검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태아 관리가 필요하다.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32주경부터 비수축검사, 태아 생물리학적 계수측정, 도플러 혈류검사를 매주 1~2회 실시한다. 담당의사는 이를 통해 태아와 산모 모두 꾸준히 감시하면서 적절한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문관 높은 ‘압력’이 항문질환 부른다!

좌욕으로 항문관 압력 낮춰야 치료·예방효과



박형철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외과 교수

항문관은 주로 항문 바로 위쪽에 있는 내 괄약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배변 시에 압력이 떨어지면서 직장에 쌓인 변이 원활하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한다. 하지만, 이 부위의 압력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있게 되면 변을 볼 때 저항이 생겨 배변 보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괄변감을 느끼기 못하고 변을 자주 나누어서 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배변 시 항문관의 압력이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현상은 항문의 흔한 3대 질환인 치핵, 치열, 그리고 치루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항문관의 압력이 높아진 원인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화장실의 위생상태가 좋아지면서 화장실에 오래 있는 것과 과거보다는 현대인이 지방 혹은 단백질이 많은 서양식 식단을 많이 먹게 되면서 이전 보다는 압력이 높아지고 항문 질환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좌욕은 항문관의 압력을 낮출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4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5분 정도 엉덩이 부위를 담그는 것이 좋다. 반신욕이나 탕에 물을 받아서 담그고 있는 것도 좌욕을 대신할 수 있다. 비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강한 수압을 사용하면 항문이 움츠러 들고 통증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가장 낮은 수압을 사용하여 30초 정도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항문관의 압력 증가로 치핵이 심해질 수 있는데, 치핵은 항문 바로 위 정맥총들이 압력으로 인하여 부풀어 올라 병적인 상황으로 진행되는 질환이다. 1년에 수 회 이상 출혈이 있거나 부풀어 오른 정맥들이 나왔다가 들어가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항문관이 찢어지는 치열의 경우는 배변 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위인 항문 뒤 쪽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주 출혈되고 배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괄약근 일부를 절개하는 수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술이 나이가 들고 나서 변실금과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수술을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환자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매우 강한 안쪽 괄약근의 일부를 절개하는 수술로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받으면 그와 관련된 합병증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항문관의 높은 압력에 의해 항문 주위에 있는 항문샘의 염증으로 시작하여 발전하는 치루는 거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물론 저절로 나을 수도 있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조그만 고름만 잡힌 초기 염증에서만 일어나고 특히 성인에서는 20%를 넘지 못한다. 대부분 버티다가 심해서 오는 경우도 많고 기저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는 항문 주위의 심한 괴사성 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니, 초기에 전문의에게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재발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최첨단 혈관수술 장비 KINEVO 900

천안병원이 최첨단 혈관수술 장비 '키네보(Kinevo) 900'을 도입해 운용 중이다. 키네보 900은 미세혈관과 동맥류 질환 수술 등에 활용되는 의료기기로 수술부위를 확대해 수술 집도의사에게 입체적인 시야를 제공한다. 4K Full HD 고해상도 화질을 제공하는 키네보900은 집도의사가 수술부위를 벗어나 잠시 다른 부위를 살펴보더라도 다시 시야를 수술부위로 정확히 이동시켜주는 '포지션 메모리' 기능도 탑재돼 있다. 수술 중 혈류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적외선 필터(Fluorescence IR 800) 기능도 갖춰 특히 뇌동맥류 및 뇌혈관 질환 수술에 유용하다. 



“지역주민 돌보는 100년 종합병원 만들 것”

첨단 의료시스템 갖춘 지역거점병원으로 키워

글_전진용 사진_최종엽

인천 미추홀 구에 위치한 현대유비스병원은 인천지역 내 3위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28년 동안 인천 주민들과 호흡하며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성장해 왔다. 이번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인천지역 최초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변함없이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 왔다. 이렇듯 지역 내 소중한 종합병원이 되기까지는 이성호 원장의 지역주민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독심 있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성호 원장은 어린 시절부터 병원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을 보며 막연한 동경심을 느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순천향대학교 의대에 입학한 이 원장은 주변에는 비록 눈과 발뿐이던 캠퍼스였지만 그 누구보다 좋은 의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의대시절을 보냈다. 졸업 후 이 원장은 순천향대학병원에서의 여러 부름을 뒤로 하고 1994년 결국 개원을 결정했다. 자신만이 꿈꿔왔던 병원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였다. “우여곡절 끝에 고향인 세종시가 아닌 지금의 인천지역에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원 초기에는 정말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거의 24시간 환자 치료와 수술을 혼자 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지금의 병원이 있을 수 있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개원한 병원에서 불과 100미터 떨어져 있던 세차장과 주차장 자리에 지난 1997년 지금 병원의 터를 다시 잡았다. 그렇게 시작된 병원이 28년 지난 지금 수천 평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 시간동안 오로지 환자를 보는 것만 생각하며 한우물만 파왔습니다. 개원 초에 찾아 왔던 환자가 이제는 자식을 낳고 아이들을 데려오고, 중년이었던 환자는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도 변함없이 저희 병원을 찾아 줍니다. 너무도 고마운 일이지요.”

첨단 의료설비 갖춘 종합병원으로 성장

이렇게 지역주민과 호흡해 온 병원은 3번의 증축을 거치며 이제 직원 총 700명, 의사 50명, 병상 186개를 갖춘 인천지역 내 3위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성장했다. “무엇보다 그동안 끈끈히 유지해 온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가 저희 병원을 거점 종합병원으로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전 환자들의 소개로 양평, 아산, 예산 등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오거든요.” 주민들의 사랑에 보답하려 이 원장도 환자를 위한 병원투자에 힘을 쏟았다. 뇌혈관, 심혈관 관련 수술과 치료를 위한 첨단 의료설비, 각종 암수술, 투석 등을 위한 설비는 물론 이제는 로봇수술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내과 모든 세부분야 전문의를 갖추고 있으며 척추 전문의만 10명 이상 보유하고 있다. 2020년에는 심장혈관술 4000건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지금까지도 직접 척추수술을 집도하고 있다. “‘그 병원 참 좋고 편하더라’라는 환자들의 소리를 들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설비에 대해서 끊임없이 리뉴얼하며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치료결과 뿐 아니라 치료 후 환자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 책임지는 100년 종합병원 만들다

환자와 주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이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성호 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1월 인천지역 최초로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을 시작해 '워크 스루(walk through) 선별진료소'도 처음 운영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았다.

도 빛났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1월 인천지역 최초로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을 시작해 '워크 스루(walk through) 선별진료소'도 처음 운영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았다. 이 원장은 카네기 지역 CEO모임, 대학병원최고경영자과정, YWCA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외부 활동도 오랜 시간 이어왔다. “좋은 의사란 결국 환자에게 인정받는 의사, 환자가 안심하고 맡기고 다시 찾는 의사라 생각합니다. 의사의 본분에 충실하면서 지역사회에도 여러 방법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저희 병원에 오시는 지역 환자들에게 보답하는 일이니깐요.”

순천향대학교에 대한 애정 또한 남달랐다. “코로나19로 동문회 활동을 잘 할 수 없어 아쉽지만 너무나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모교 순천향대학교 4개 병원을 보면서 너무나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병원을 올바르게 이끌어 올 수 있게 해 준 마음의 뿌리가 되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장은 “지금도 지역 주민과 사회에 갚아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믿고 찾으며 언제나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병원, 100년 이상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이 원장이 보여준 독심과 열정,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현대유비스병원은 100년, 아니 200년까지도 주민 옆을 든든히 지켜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왜 힘들지? 취직했는데』

직장 생활이 왜 그렇게 힘 드는가?



첫 취업의 절반은 1년이하 계약직이며 때문에 청년들이 로또와 코인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왜 수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에 취직하고도 그렇게 힘들어 할까? 그 일단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자전적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왜힘들지? 취직했는데”라는 책이다. 10년의 직장생활동안 영업사원이었다가 카피라이터를 하다가 유학을 다녀와 커피회사에 다니는 작가는 ‘죽을만큼 원해서 취직한 곳에서 왜 나는 죽을 것 같은가’에 대한 답을 써내려 간다.

‘고민이 많아 고민’인 직장인 10년차 원지수 작가는 취직 후 지내는 세월을 통해 선택과 후회로 범벅이 된 나날과 한 칸에서 출근을 1시간 일찍하기도 하고, 점심을 30분 빨리 먹기도 하고, 잠을 1시간 늦게 자기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써낸 글들을 책으로 펴냈다. 그렇게 이 책에서는 20대 초반의 입사경험, 영업사원으로서의 용감무쌍한 돌격, 늦깎이 카피라이터 초년병으로서의 생활, 유학을 결정하기까지의 고민, 영국에서의 유학생생활, 영국에서의 일자리 모색, 돌아와 2번째 사표내기까지의 자신의 꿈을 찾는 과정, 그리고 글이 알려진 뒤에 다시 또 커피회사로 이직하기 까지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속해있는 영역에서의 이야기들이 그려진다.

작가는 첫 직장에 출근할 때는 ‘인천’에서 강남까지 아반떼를 몰고 갔는데, 이제 서울에서 글을 써서 자기의 이름으로 된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벌써 직장생활 10년을 하였음에도 이제 겨우 34살의 젊은 나이이다. 책에는 카카오 브런치북 수상작이라는 훈장까지 달았다. 30 이립(而立)에 성공한 보기 드문 젊은이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러하니 독자들은 자신들과 처지가 같다고만 생각하다간 큰 오산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작가)자신은 ‘망했는데 괜찮아’란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낙

심한 젊은이들이 자신들과 같은 처지로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무엇이 고민인가? 취업한 사람으로서 는 취직하고도 심하게 흔들리는 사람의 고민을, 그 심정을 알아보고 싶어서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게 되었다. 여러 에피소드가 재미있고, 공감이 가기도 하고 또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힘든 이유는 사회의 변화와 취업한 사람들의 가치관이 빠르게 변화되어 누구를 뭐라고 탓할 수 없지 않을까? 그저 적응하며 살아가는 직장의 한 사람으로 필자도 마음이 답답해져 온다.

이 책에서는 “직장에 잡아 먹히지 않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 유일한 길로 표현되고 있다. 해결책이라고 딱히 말할 것도 없고, 정말로 망한 것도 아닌 그야말로 웃자고 한말에 (필자는) 죽자고 달려드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이 책은 직장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한번 읽어 볼만한 책으로 보인다. 열심히 살아서 웬 만큼 희망의 환한 빛이 보이는 거리로 들어선 작가의 글재주에 감탄하며, 상큼하고 발랄하며, 재치가 넘치는 작가의 자립 과정을 읽게 되었다. 다음엔 고민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고민을 그가 헤쳐 지나가게 될 경험담을 또 책으로 만나게 될 것 같아 기대된다.



박준수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재즈 레이블 대백과』

국내 최초 음반 라벨과 앨범 자켓 모음집…음반에 숨은 내밀한 이야기



2년 전 ‘찌지한 남자의 재즈 이야기-찌찌한 이야기’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던 방덕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이번엔 ‘재즈 레이블 대백과’를 출간했다. ‘재즈 레이블 대백과’는 재즈 애호가들의 입장에서 한 번쯤 들어보고 기억할 만한 음반을 라벨과 앨범 자켓을 중심으로 엮은 책이다.

독자들은 각각의 음반이 갖는 의미나 감상 포인트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라벨을 모아놓은 책은 처음 볼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오래 곁에 두고 음악을 들을 때마다 펼쳐 본다면 그 진가를 알게 될 것이다.

재즈는 음악도 음악이지만 음반의 이면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넘치고, 그 사적이고 내밀한 이야기를 아는 만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이다. 재즈는 태생부터 자유로운 즉흥 연주가 많아 같은 음악가가 연주했다 하더라도 녹음 당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음반에는 전혀 다른 느낌의 음악이 담긴다. 그래서 재즈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느 음반사에서, 언제, 어떤 연주자들과 함께한 음반인지 늘 확인한다.

또 많은 재즈 애호가들은 음반을 모으고 반복해서 들으며 자신의 생각이나 취향이 바뀌는 것을 발견한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상하게 들리던 음악이, 어느 날 단지 볼륨을 크게 했을 뿐인데 상당히 좋은 느낌으로 들리기도 하고, 유명한 음반이라고 해서 어렵게 구했는데 막상 들어보니 취향이 아닌 것 같아 잊고 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우연히 듣다가 감동하기도 한다.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면 어떤 습관이 생긴다. 바로 음반 자켓과 라벨을 감상하는 것이다. 단지 레코드판을 보호해주는 포장에 불과해 보일지 모르지만 재즈 애호가들에게 재즈 음반의 자켓과 라벨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재즈를 오래 듣다 보면 어느 때는 자켓이나 라벨만 보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그 선율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을 누구나 갖게 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만큼 재즈 음반의 자켓과 라벨은 재즈 선율만큼이나 강렬하고 깊은 심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방덕원 교수는 대학생 때 우연히 들었던 재즈 음악에 심취해서 이후 30여 년간 재즈 음악을 듣고 있다. 초보 리스너에서 재즈 전문 블로거, 엘피 컬렉터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재즈 시디 1500여 장, 엘피는 3000여 장 정도를 소장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며, 블로그와 온라인 사이트에 ‘BBJAZZ’라는 아이디로 재즈 음반 소개글을 올려왔다. 현재도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BBJAZZ), 온라인 카페 ‘JBL IN JAZZ’와 ‘하이파이코리아 오디오’에 재즈 관련 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그림은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았으나 태블릿 패드로 재즈 앨범 재킷을 따라 그리면서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림 그리기가 또 다른 취미 생활로 자리 잡았다. 



방덕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심장내과 교수

의료원 / 순천향대 / 의대동창회

제5회 의과대학 학생 학술·자치활동 경연대회 실시



순천향대학교는 11월 19일 교내에서 제5회 의과대학 학생 학술활동 및 자치활동 경연대회를 진행했다. 행사는 순천향대 의과대학 졸업생 이수연 동문의 '선배에게 듣는 의사 과학자의 길' 특강을 시작으로 △학생 학술활동 발표(13건) △학생 자치활동 발표(11건) △특별 주제강연(순천향의생명연구원 이종순 부원장의 'Bench to Bedside') △총평 및 시상의 순으로 이어졌다. 1학년 유주연 학생 외 3명은 김덕수 교수의 지도로 만성신부전 환자의 임상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뇌 기능의 변화를 확인했다. 만성신부전에 의한 신장 기능 저하와 인지기능 저하와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자치활동 부문에서는 동아리, 스테디, 봉사활동 등 다양한 학생 자치활동이 소개됐다. △학생 영양실태 조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SCOPE 임상 실험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성과와 전망 등 학교생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3D프린팅 BIZCON 경진대회 '석권'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가 제9회 국제 3D 프린팅 코리아엑스포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제6회 3D프린팅 BIZCON 경진대회'에서 디자인 부문 대상과 구동 부문 우수상을 휩쓸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본선에 오른 총 50팀을 대상으로 전문심사위원 5명이 최종 심사를 진행한 결과, 순천향대는 팩토리인사이드센터팀, 의용메카트로닉스공학과팀 등 2팀이 각각 디자인 부문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과 구동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대상을 받은 순천향대 팩토리인사이드센터팀은 우리나라의 대표 여행자인 서울, 부산, 경주, 제주 등 4개 도시의 주요 랜드마크를 오브제 형태로 재구성해 지역의 역사적 고증과 창의적 해석이 담긴 문화기념품 '모듬한국'을 선보였다. 이 작품은 코로나19로 증가한 여행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대리 만족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네이버와 협약, 보이스EMR 등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 개발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과 네이버는 12월 15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청원홀에서 병원서비스의 인공지능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순천향중앙의료원은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네이버는 의료업무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우선 협약사업으로 Voice EMR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석근 네이버 글로벌CIC 대표는 "네이버는 AI 선도기업으로서 다양한 AI 분야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음성 인식 분야에서는 최근 자체 개발한 엔진에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 기술을 적용하는 등 압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의료지식과 네이버의 AI 기술의 결합을 통해 간호 현장에서의 의무기록 업무를 효율화하고,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유성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은 "진료와 치료 중심의 병원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의 미래 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핵심기술 ABC(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와 기술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며 "우리 병원은 앞으로 인술에 기술을 더해 누구나 쉽게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졸업 30주년 맞은 순천향의대 8회, 동창회 발전기금 1억140만원 기부

올해로 의과대학 졸업 30주년을 맞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8회 동기회(회장 안현철)에서 순천향의대 총동창회에 발전기금 1억 140만원을 기부했다. 8회 동기회는 10년 전 졸업 20주년 때도 동창회 발전기금 1억을 기부한 바 있다. 안현철 회장은 "더 힘 있는 순천향의대동창회와 더 발전하는 모교의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되었다"며 "위규석 총무와 김대익 전임 회장이 주축이 되어 기금 마련에 적극 동참해 준 동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동문회 도약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백승호 회장님, 신영수 부회장님 이하 동문회 임원진께도 감사드리고, 코로나19의 최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본교 대학병원 의료진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향대병원에 근무하는 8회 동문은 △서울병원 : 안과 이성진(진료부원장), 신경외과 장재철 조성진 △부천병원 : 소화기내과 유창범, 응급의학과 임훈 △천안병원 : 외과 김성용, 신경외과 윤석만, 비뇨의학과 이창호 △구미병원 : 영상의학과 최교창 교수 등이 진료와 연구, 후배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최상위 2% 세계 과학자 리스트에 연구자 12명 등재

순천향대학교가 국제저널 엘스비어(Elsevier)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 발표한 '최상위 2% 세계 과학자 리스트'에 총 12명의 연구자가 이름을 올려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과 업적을 인정받았다. 대전·충청지역 사립대학 중 가장 많은 연구자가 이름을 올리게 돼 대학의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 연구자의 생애 업적 기준으로는 △김대영(화학) △남윤영(컴퓨터공학) △유일선(정보보호학) △이병국(예방의학) △이병택(재생의학) △장기현(영상의학) 등 6명의 연구자가 상위 2%에 이름을 올렸다. 2020년 기준으로는 △김대영(화학) △김성렬(환경보건학) △남윤영(컴퓨터공학) △박성희(간호학) △유일선(정보보호학) △이병국(예방의학) △이병택(재생의학) △이승홍(의약공학) △이은영(내과학) △이종순(의생명융합학) △이태훈(내과학) 등 11명의 연구자가 선정됐다. 이 중 5명(김대영, 남윤영, 유일선, 이병국, 이병택)은 두 개 기준에 모두 포함돼 순천향대는 총 12명의 연구자가 '최상위 2% 세계 과학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병원

대사증후군, 갑상선 자가면역과 연관성 밝혀 김혜정 순천향대서울병원 내분비내과 교수팀



김혜정 내분비내과 교수팀(박상준 박형규 변동원 서교일 유명희)은 최근 갑상선 자가면역과 대사증후군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해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복부 비만, 낮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고혈압 등의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갑상선 자가면역과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김혜정 교수는 "갑상선 자가면역과 대사증후군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잘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추가적인 대규모 종단 연구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갑상선 자가면역 및 대사증후군(Thyroid autoimmunity and metabolic syndrome: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이라는 제목으로 유럽 내분비학회 학술지 (European journal of endocrinology) 에 게재됐다.



한바이오그룹과 세포 기반 연구협력증진 MOU 유전자검사를 통한 건강증진 헬스케어 분야 협력 확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한바이오그룹은 12월 29일, 공동연구 활동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세포를 이용한 질환 진단과 치료 공동연구는 물론 향후 유전자검사를 통한 건강증진 헬스케어 분야도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한바이오의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한 세포치료 및 치료제 개발 등 세포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한바이오를 파트너로 택했다. 한바이오그룹은 한바이오(주), 한모바이오(주), 한바이오 유전자(주) 등의 계열사를 통하여 세포 배양 및 치료제 연구 등에 전문화된 세포 전문 바이오기업으로 세포 관련 분야에 연구와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계열사 중 한모바이오는 NK면역세포 및 줄기세포 배양연구를 통하여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탈모 문제 해결을 위한 모유두 세포의 대량배양에 성공하여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임상 절차를 밟고 있다.

자살예방 사업·청소년 유관기관과 생명사랑심포지엄 개최



서울병원(원장 서유성)은 11월 8일 동은대강당에서 제1회 생명사랑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생명사랑팀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병원은 자살예방 사업 및 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를 위해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자해 현황(윤경희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부센터장) ▲지역사회의 청소년 자살자해Ⅰ(이현진 가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역사회의 청소년 자살자해Ⅱ(이연주 서울시교육청 학생방문지원사업 담당자) 등의 강연과 사례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연정 센터장은 "자살 사망자의 25~50% 정도는 이전에 자살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살 시도자는 결국 자살로 사망할 위험이 높다"며 "병원을 찾은 자살 시도자들이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심포지엄도 기획하게 되었고 앞으로 정례화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 3회 연속 선정

서울병원(원장 서유성)이 최근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으로 3회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협력기관 선정에 따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과 환자 픽업 및 샌딩 차량 서비스 지원, 중증환자 시설킨리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관련 인력·실적, 다국어 홈페이지 등의 정량적 평가와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정성적 평가, 온라인 예약, 종교 편의 서비스 등의 가산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울관광재단이 3년마다 선정한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국제의료협력팀은 팀장부터 전담 간호사, 행정직원, 코디네이터에 이르기까지 모두 해외경험이 풍부하고 원어민 수준의 제2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2021년 Q1활동 총결산, 경진대회 개최



서울병원은 12월 8일 오후3시부터 동은대강당에서 2021년 Q1경진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경진대회는 1부 구연발표에 이어 2부 연속과제 발표, 3부 이벤트 및 시상 순으로 진행했다. 대회 결과 중환자실이 영예의 대상을 받았고, 응급의료센터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투여오류TFT와 약제팀에게 돌아갔다. 장려상은 낙상예방TFT, 모자6병동, 수술실운영위원회·수술실, 영양팀·가정의학과·재활치료팀이 받았다. 연속과제를 발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TF팀은 열정상을 받았다. 포스터부문에서는 진단검사의학팀과 화복실이 우수상을 차지했다.

부천병원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 대한외과학회 차기 이사장 선출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2021년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ACKSS 2021)'에서 대한외과학회 차기 이사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2년 11월부터 2년간이다. 대한외과학회는 1947년에 창립되어 16개 분과학회와 7개 연구회, 회원 수 8천여 명에 달하는 국내 굴지의 의학 학술단체다. 신응진 병원장은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로 대한외과학회 이사,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 대한암학회 이사, 대한병원협회 이사,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외과학 및 국내 의료계 발전에 헌신해왔다.

이문성 소화기내과 교수, 제41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장 취임



이문성 소화기내과 교수가 제41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2년 11월까지 1년간이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1976년에 창립해 현재 회원 9천여 명에 달하는 국내 의학 학술단체다. 이문성 신임 회장은 소화기암의 내시경적 치료술을 선도한 공로로 2019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에서 왕성한 학술 활동을 이어 왔다. 또한, 순천향대 부천병원 제8~9대 병원장을 역임하며 경기 서북부권 보건으로 환경 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김호중 응급의학과 교수, 외교부 주관 유럽 영사회에서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대한 의료해결방안' 발표



김호중 응급의학과 교수가 2021년 11월 19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외교부 주관 2021년 유럽 지역 사건사고 담당 영사회'에 참석해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대한 의료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본 회의는 영사조력법 시행 이후, 사건사고 담당영사의 재외국민 보호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사례, 노하우를 공유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 지역 31개 공관의 사건사고 담당 영사 및 경찰청, 응급의료분야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해외응급환자 발생 시 영사조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희 산부인과 교수, 'See the Future 2021' 컨퍼런스 초청 강연



김태희 산부인과 교수가 2021년 11월 20일 학술 논문 교정 기업 '이나고(enago)'가 주최하는 'See the Future 2021'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Randy Wayne Schekman 박사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권위 있는 세계 석학들이 참여했다. 김 교수는 <변화된 미래를 꿈꾸며-의학연구원과 의사를 위한 특별 강좌>를 주제로 '위기 상황 속에서 의과대학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 COVID-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환자치료 및 관리, 팬데믹 시대 학술 및 연구 분야 변화' 등에 대해 인상적인 강연을 펼쳤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20주년 기념 화보집' 발간

순천향대 부천병원 20년 역사와 성과를 집대성한 '20주년 기념 화보집'이 발간됐다. 본 화보집은 '인간사랑 20년, 더 큰 꿈 100년'이라는 타이틀로 크게 7개 섹션, 총 164페이지로 구성됐다. 멋진 연출 화보부터 설립자 고향설 서석조 박사의 주요 일대기와 의료 철학, 병원 주요 역사와 성과, 국내외 사회공헌 활동, 첨단 미래 의학연구 활동 등 지난 20년간의 주요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화보는 종이책 외 전자책(E-Book)으로도 발간돼 PC와 모바일에서 볼 수 있으며, <진료과 및 부서 20년사>를 담은 특별 부록이 추가됐다.

전자책 (E-Book)



천안병원

허한 전공의, 백혈병 환자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천안병원의 전공의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에 나선 사실이 알려져 차가운 겨울의 길목에서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미담 주인공은 응급의학과 허한

전공의다. 허 전공의는 한 40대 백혈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몸을 내주었다. 허 전공의는 2017년 순천향대의대 재학시절 중앙혈액내과 실습 중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서류에 서명을 했다. 등록 4년 뒤. 조혈모세포은행으로부터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이 왔고, 허 전공의는 이식기관을 찾아 검사를 비롯한 기증 절차를 모두 마친 후 병원업무에 복귀했다. 조혈모세포는 혈액 속 백혈구·적혈구·혈소판 등 혈구를 공급하는 특수세포다.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 환자들은 건강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야만 치료는 물론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환자와 조직적합항원이 일치하는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를 찾아야 가능하며, 공여자는 기증할 조혈모세포를 채집하기 위해서 3~4일 입원해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한다.

Q! 페스티벌 개최



천안병원이 '2021 Q!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Q! 페스티벌'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병원 교직원들이 1년 동안 진행한 Q!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는 자

리다. 2021년에는 4개 분야에서 총 23개 팀이 Q!활동을 펼쳤으며, 페스티벌에서는 지난 7월 중간발표회 예선을 통해 선정된 3개 분야 8개 팀의 발표가 진행됐다.

사랑과 감사나눔 '러브트리' 행사 진행



천안병원이 연말을 맞아 '러브트리' 행사를 진행했다. 러브트리는 병원 교직원들이 매년 동료들과 한 해를 추억하고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연말행사다. 병원은 매년 12월마다 원내 2곳에 러브트리를 설치하고, 교직원들은 사랑과 감사를 전할 손카드를 내건다. 수많은 편지가 걸린 러브트리는 그렇게 지나는 이들에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연출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병원 본관과 외래진료관 로비 2곳에 설치된 러브트리에는 약 5백여 통의 카드가 달렸다.

혁신형 의사과학자 융합연구센터 심포지엄 개최



천안병원 혁신형 의사과학자 융합연구센터가 천안 신라스테이 연회장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센터는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의 충청·세종시권역 수형병원으로 선정돼 10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은 정부가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해 신진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임상현장의 아이디어 발굴과 실용화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의 연구실적을 공유하고 향후 센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랑회, 불우이웃 가정에 쌀·라면 지원



병원 간호부 봉사모임 사랑회(회장 남정옥)가 병원 인근 불우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후원품을 전달했다. 후원품은 쌀(20kg) 10포와 라면 10박스로 천안시 봉명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의 가정에 전달된다. 남정옥 회장(외과계중환자실)은 "추운 겨울 이웃분들이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희자 간호부장은 "간호부는 매월 회비를 모아 불우이웃에게 의료봉사를 비롯해 물품, 생활비 등을 28년째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 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



천안병원 충청남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이용진)가 '2021년도 충남형 도민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충남형 도민 환경보건 기초조사'는 환경오염 위험지구 및 취약지구를 제외한 충남의 일반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현황파악과 환경 유해물질 노출요인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센터의 조사 자료는 정부의 환경보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센터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기초조사는 설문조사, 신체계측, 혈액·소변 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체 내 중금속, 내분비계장애물질,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사체, 과불화화합물 등 오염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구미병원



임산부 직원 배려 캠페인 '배려덕분입니데이'

구미병원은 행복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26일 임산부 직원을 위한 배려 문화 캠페인 '배려덕분입니데이'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임한혁 병원장, 김진현 사무처장, 김영실 간호부장 등 주유보직자들이 임산부 직원이 있는 부서에 직접 방문해 임신을 축하하는 의미로 간식 BOX를 선물로 전달하였으며, 건강한 출산과 직장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킬수 있도록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임산부 직원 배려 캠페인은 임산부 직원을 배려하는 더 나은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년10월10일을 임산부 직원 배려 캠페인의 날로 지정하여 자체 제작한 임산부 배려 배지와 축하 선물꾸러미를 지급하고 있다.



신규간호사 돌잔치 "치얼업데이(Cheer up day)" 행사

구미병원은 지난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2020년 입사한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1주년 돌잔치를 기념하는 치얼업데이(Cheer up day)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임한혁 병원장을 비롯하여 김영실 간호부장 등 주유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지난 1년 동안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힘든 병원 생활에 잘 적응한 신규 간호사들에게 격려와 사기증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치얼업데이(Cheer up day) 행사 진행은 ▲임한혁 병원장의 축하 ▲김영실 간호부장의 격려사 ▲꽃다발과 선물증정 ▲동료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롤링페이퍼 전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준수하여 부서별 방문 축하로 진행되었다. 김영실 간호부장은 "간호사로서의 실력과 더불어 환자들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세와 의지, 열정을 응원한다"며, "가치 있고 즐거운 병원 간호사 생활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구미병원, 지역 최초 '병원비 한번내는 시스템' 운영

구미병원은 내원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에서 최초로 11월 1일부터 '병원비 한번 내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병원비 한번 내는 시스템'은 병원에 내원한 환자가 외래진료 전 과정을 마친 후 귀가 전 한꺼번에 일괄 수납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환자 및 보호자들이 수납을 위해 매번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불편함을 대폭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환자 및 보호자가 수납창구를 방문해 접수, 검사수납 등 여러번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병원비 한번 내는 시스템을 통해 외래 수납 대기시간을 대폭 감소시켜 빠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임한혁 병원장은 "병원비 한번 내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절차의 간소화와 수납대기시간을 크게 단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질 높은 의료 환경조성과 내원객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환자안전 챌린지 "응답하러! 환자안전!"

구미병원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한 병원문화 정착을 위한 2021년 환자안전 챌린지 "응답하러! 환자안전!" 주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양승부 기획실장을 비롯하여 윤종현 QI실장 등 주유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지하1층에서 진행되었으며,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나의 다짐을 응모하여 다짐왕을 선발하고 시상하였다. 또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마련되었으며, 12월에는 환자안전카드를 만들어 크리스마스트리에 장식해 환자 및 내원객들에게 환자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한편 구미병원은 임한혁 병원장을 비롯하여 주유 보직자들이 환자접점부서를 방문해 환자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듣고 개선을 시행하는 등의 "환자안전라운딩"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합니다’

SCH 서울병원

www.schmc.ac.kr/
02-709-9114



SCH 부천병원

www.schmc.ac.kr/bucheon
032-621-5114



순천향대학교

www.sch.ac.kr



SCH 천안병원

www.schmc.ac.kr/cheonan
041-570-2114

SCH 구미병원

www.schmc.ac.kr/gumi
054-468-9114



